

별 관 용
(일반 일괄선)

北傀의 對美接觸에 관한 考察

그 展望과 對策

관 용
(관리과)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拠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内容은 刊行処의 意見を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傀의 对美接触到 관한 考察

- 展望과 对策 -



研究執筆責任 梁 好 民

(略歴) 朝鮮日報社統韓問題研究所長

刊行責任 鄭 錫 弘 (心理戰担当官)

國土統一院教育弘報局

目 次

序 言	3
第 1 章 金日成의 对美基本立場	9
(1) 統一問題와 美国	10
(2) 카터大統領에 대한 態度	14
(3) 对美平和協定の 方向	18
(4) 对美平和協定の 問題点	23
(5) 对日基本立場	28
第 1 章 [註]	32
第 2 章 美国의 对敵性国 接近類型	35
(1) 美·中共의 接近	35
(2) 美·越南의 接近	42
(3) 美·쿠바의 接近	51
第 2 章 [註]	60
第 3 章 美·北韓接觸의 배경	63
(1) 美国의 새 世界政策	64
(2) 美国의 아시아政策	65
(3) 美国의 对北韓接觸 可能性	68
(4) 北韓外交政策의 변천	70
(5) 北韓의 对美接近배경	73
第 3 章 [註]	77

第4章 美・北韓 접촉과정.....	79
(1) 北韓의 人民外交戰術.....	79
(2) 美國의 對北韓政策 再調整.....	82
(3) 포드의 對北韓政策 硬化.....	87
(4) 北韓의 對美接近攻勢와 카터의 宥和政策.....	89
第4章 [註].....	94
第5章 美・北韓 접촉과 韓國安保와의 關係.....	95
(1) 對外條約 및 安保體制上的 問題.....	99
(2) 軍事戰略 및 技術的인 問題.....	112
第5章 [註].....	125
結 論.....	127

序 言

駐韓美軍의 철수를 選挙公約으로 들고 나오면서 카터民主党大統領候補가 美国大統領에 당선된 사태는 北韓의 金日成에 적지않은 期待感을 주었음이 명백하다.

韓半島를 맑스-레닌主義의 기치 밑에 그리고 그것도 自己의 主導下에 統一한다는 意志를 포기해 본 일이 없는 그에 대하여 최대의 장애로 되어온 것은 駐韓美軍이오. 駐韓美軍만 철수하면 南韓에 造成될 수 밖에 없는 國際的 힘의 空白地帶를 利用하여 共產主義的 統一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는것이 그의 변함없는 展望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對美政策의 基調와 그리고 이와 불가분적으로 關聯된 對南韓政策의 焦點은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駐韓美軍을 하루 빨리 철수시키는데 두워왔던 것이다.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政治上的의 現實과 그것이 놓여있는 地政學的 위치는 世界 어떤곳에서도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특수한 것이다.

北韓은 鴨綠江과 豆滿江을 境界로 蘇聯과 中共의 서로 각축하는 두 共產主義巨國과 國境을 더불어하고 있다. 그리고 北韓은 이 두 나라와 1961年 7月 다같이 <友好協力 및 互相援助條約>이라는 이름의 軍事條約을 체결하고 있다. 미·소의 두 나라와 國境을 접하고 있는 共產主義나라는 世界에서 사실상 北韓 밖에 없다. 왜냐하면 蒙古人民共和國(外蒙古)도 北으로는 蘇聯과. 南으

로는 中共과 國境을 나누고 있는 또하나의 共產主義 나라이지만 이 나라는 사실상 蘇聯이 獨占的으로 지배하고 있는 聯邦의 한 構成國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소의 두 나라와 동시에 軍事條約을 맺고있는 나라는 全世界에서 北韓 하나 뿐이다.

같은 分斷國에 속하는 東獨은 바르샤바條約機構에 속해있음으로 蘇聯의 軍事同盟이지만은 中共과는 軍事條約이 없다.

한편 大韓民國은 1953年 10月 美國과 <韓·美相互防衛條約>을 체결했다. 이로써 韓半島는 美·소·中共의 3大核國이 國際的條約에 의하여 軍事的으로 다 같이 介入되어 있는 世界唯一의 地域으로 되었다. 이러한 狀況은, 南北韓間의 긴장이 최악의 격화상태에 빠지거나, 3大背後國의 關係가 惡化될 때는 韓半島는 새로운 世界大戰의 싸움터로 化할 危險性을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 韓半島는 그렇게 위험한 地域이기 때문에 도리어 安全하다는 逆說的 論理도 가능했고 지금도 가능하다. 요컨대 韓半島의 平和는 1953年 7月의 休戰以後 核戰爭의 공포 속에서 살고있는 背後列強들의 勢力均衡에 의하여 유지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金日成은 韓國을 자기의 기빨밑에 統一하는 方案을 美軍의 韓半島철수로써 이곳의 勢力均衡을 깨트리고 南韓을 國際的 支援으로부터 고립시키는데서 찾아왔다.

그리하여 그도 休戰以前에도 休戰交涉中에도, 그리고 休戰以後 지금까지 일관하여 <美帝侵略軍>의 南朝鮮撤去를 무정해왔다.

1958年 가을 北韓으로부터 中共의 소위 <人民志願軍>이 철수하자 그는 北韓에도 단 한명의 外國軍隊도 없는데 南韓은 여전히 <美

帝의 侵略軍 > 独占下에 있다는 論拠에 의해 對美·對南 平和政勢를 시도해왔다. 北韓에는 蘇聯軍이나 中共軍이 주둔하고있지 않아도 필요할 경우에는 순식간에 國境을 넘어 들어올 수 있는데 反해. 美軍은 일단 南韓으로부터 철수했다가 再上陸하려면 太平洋을 건너야하고, 美國軍의 支持를 얻어야하고 더 나아가서는 美議회의 同意까지도 받아야하는 條件이 붙어있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는 外國軍이 주둔해 있거나 안 있거나 실제로는 하등의 差異가 없다. 이렇게 南·北韓이 가지고있는 地政學上的 差異는 바로 韓國의 安全保障에 決定的인 弱點이 되어왔다. 이러한 弱點이야 말로 바로 金日成의 駐韓美軍撤収戰略의 핵심으로 되어왔고, 美軍을 韓半島로부터 반드시 撤収시키고야 만다는 그의 不變의 堯원은 그의 對美政策에서 양보할 수 없는 目標가 된지 오래다.

따라서 앞으로 金日成政權이 그 어떤 對美接觸을 시도할 경우에도 이러한 目標를 추구하는 그의 對美政策路線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結論을 먼저 내리고저 한다.

그러나 이 政策路線을 전개하는 過程에서는 상당히 신축성있는 戰術으로써 美國의 行政府와 議會에 대해 國際的壓力과 個人的說得을 아울러 시도하고, 美國民들에게대해서는 그들의 心情에 호소할 수 있는 平和宣傳을 강화해 나갈것을 생각할 수 있다.

카터大統領이 취임한 이후 그는 <美帝>라는 이데올로기用語의 사용빈도를 축소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美帝>라는用語를 결코 철회한 것이 아니다. 現時點까지에 명백한 것은 그가(따라서 北韓의 모든 매스·메디아가) 카터大統領에 대해서는

존슨, 닉슨, 포드에 대해 예외없이 불여오든 <美帝의 頭目>이란 형용사를 아직까지는 붙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金日成은 駐韓美地上軍을 앞으로 4~5年内에 철수시킨다고 하는 카터大統領을 戰術上 일단 美國의 <帝國主義者>들과 구별하면서 애써참고 그의 感情을 자극하지 않으려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駐韓美地上軍의 철수계획에도 불구하고 美行政府가 韓國에 계속 空軍部隊와 情報部隊는 남긴다는 政策을 바꾸지 않고 韓國軍의 戰力增強을 위한 계획과 對韓防衛公約을 준수해 나가는 한은 카터大統領도 치열한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金日成과 그의 政策立案者들이 對美對策의 戰術을 수시로 다양하게 바꿀것이라는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첫째로 共產主義者들은 적어도 스탈린以來로 革命的 事業에 있어서 敵에 대한 戰術을 옳게 설정한다는 것을 勝利의 關鍵이라고 생각하는 習性을 키워왔고 그런 戰術에 따라 투쟁하는 것을 行動의 鐵則으로 삼아왔다. 이것은 國內政治에서나 對外關係에서나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西方世界에서는 전통적으로 現實主義, 프래그마티즘, 당장의 實利主義 利益을 위한 脫이데올로기의인 타협과 便宜主義, 勢力均衡, 節次와 技術, 힘의 政策등을 國際政治에서의 行動의 原則으로 인식하고 이데올로기, 戰略과 戰術의 차이, 窮極的 目標등을 경시해왔다. 따라서 西方의 外交는 왕왕 共產主義者들의 戰術에 의하여 기만되어 온 것이며 이에서 가장 성공한 者는 스탈린이라고 할것이다.

金日成도 지금까지 시도해온 일련의 對美政策에서 戰略的 目標에 적용하는 그때그때의 情勢에 부합하도록 다각도의 戰術을 구사해왔

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革命의 이데올로기에서 導出되었음은 물론이다. 本章에서는 그의 對美 戰術과 關聯하여 그의 美國에 대한 基本的 立場이 어떤 것인가를 主로 最近年の 그의 著書에 입각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그가 美國의 對韓政策을 어떻게 認識하고 美國에 대한 그의 立場이 基本的으로 어떠한 것인가의 問題는 앞으로의 美·北韓間에 接觸이 있을 경우, 또는 接觸이 없으면 없는대로 그의 行動을 決定하는 重要的 基準이 될 것이다.

第1章 金日成의 對美 基本立場

金日成의 美國에 대한 認識과 立場은 막스·레닌主義者로서의 그가 견지하고 있는 帝國主義의 이데올로기, 그의 〈永生不滅〉의 主体思想, 韓國戰爭때에 그의 心情을 파고 든 對美원한, 共產主義統一에 대한 그의 重要한 慾望, 美國国力에 대한 그의 誹謗등에 의하여 形成되어있음은 물론이다. 그가 美國의 本質을 레닌의 理論에 따라 極少數者가 지배하는 〈独占資本主義〉요, 戰爭으로서만 延命할 수 있는 〈好戰分子들〉의 나라요, 〈人權差別主義〉요 〈滅亡해가는 帝國主義〉요, 〈侵略主義〉라고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임으로 더 論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観点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蘇聯軍의 北韓進駐(1945年)는 解放인데 反해 美軍의 南韓進駐는 〈侵略〉이요, 美國만이 韓半島分斷의 責任者요, 韓國戰爭은 〈美帝國主義者들〉이 도발한 〈侵略戰爭〉이요, 美軍의 韓國駐屯은 〈独占〉이요, 大韓民國은 〈美帝의 植民地〉요, 歷代韓國政府는 美國의 〈傀儡政權〉이요, 韓半島에 있어서의 美國의 平和維持政策은 〈朝鮮의 分裂을 永久化〉하려는 策動이라고 規定해 왔다.

이러한 論述에서 그는 自己의 對美鬪爭을 聖스러운 〈反美救國鬪爭〉이라고 불러왔고, 愛國이나 売國이나의 基準을 反美나 親美냐에 두어왔다: 이 單純化된 論理에 의하여 그는 統一路線을 定立해왔고, 그의 共產主義統一政策을 수락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民族叛逆者〉요 〈美帝의 앞잡이〉요, 〈事大主義者〉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이것도 주지되어있는 사실임으로 더 論及하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分析의 대상으로 삼고져 하는것은 그의 全般的 對美認識과 立場을 형성하고있는 韓半島의 現狀에 대한 그의 일련의 觀点들이다. 그가 1945年 이래로 北韓의 最高權力者의 地位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에 의하여 北韓共產政權의 對美·對南政策에는 本적으로 아무런 變化도 겪지 않고 一貫性을 유지해올 수가 있었다. 北韓의 政權의 交替가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은 韓半島問題의 部分的 해결이나마 柔軟性을 가지고 모색할 수 있는 機會를 빼앗아 버렸다.

金日成의 思考는 20年前이나 오늘이나 그 內容이 同一하며, 새로운것이 있다면 그 表現上의 뉴앙스요 戰術面의 非本質的 變化뿐이다. 그러므로 本章에서는 최근년, 특히 南北對話의 政체 이후와, 그리고 카터大統領이 駐韓美軍철수問題를 제기한 時期를 中心으로 金日成의 對美立場이 어떤가를 살펴 보고자한다.

(1) 統一問題와 美國

金日成은 카터가 大統領에 취임한 후 國際的인 宣傳을 目的으로 77年 4月 23日에는 日本 <読売新聞> 編集局長과 會見했고, 6月 20日에는 프랑스의 <르·몽드> 記者에게, 그리고 7月 3日에는 다시 日本 NHK 放送 取材團에 대해 <談話>의 형식으로 그의 見解를 발표했다.

한편 이에 앞서 南北對話가 이미 중단상태에 빠진 74年 8月 9~10日에는 日本의 自民党国会議員 宇都宮徳馬와 會談했고, 美國

의 大統領選舉戰을 앞두고는 日本의 <世界>誌 編集長과도 일련의 <談話>를 했다. 이 몇개의 <談話>안에는 金日成의 統一路線이 그의 對美觀과 關聯하여 교묘하게 피력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7·4 南北共同聲明에 밝혀진, 自主, 平和統一, 民族大團結의 3大原則은 北韓側이 내놓은 것이요 <南朝鮮當局者들도 이原則에 同意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南韓側은 이 聲明이 발표되자마자 3大原則들을 하나 하나 否定해 나갔다고 하며 그 까닭을 그는 <美帝國主義者들의 戰術인것 같다>^{註1)}고 판단하고 있다. 그가 <自主>라는 명분에서 追求해온 戰術的인 目標은 駐韓美軍을 철거시키는 것이었다. 벌써 1970年 8月 <로동신문>은 金日成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다음과 같이 썼던것이다.

……朝鮮의 統一問題는 朝鮮人民 内部의 問題이며 우리人民의 民族自決에 속하는 問題이다. ……朝鮮의 平和的 統一을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統一의 근본장애인, 朝鮮에서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 張本人인 美帝侵略軍을 南朝鮮에서 철거시켜야 한다. 오직 美帝侵略軍隊가 南朝鮮에서 철거함으로써만, 朝鮮人民의 自由로운 意見에 의해서만 統一問題가 해결될 수있다.

美國이나 그 어떤 外部勢力도 여기에 간섭할 權利가 없다.^{註2)}

이러한 見地에서 金日成은 自主的 立場을 버리고 <外勢에 의존하여 나라의 統一을 實現하려는 그 어떠한 試圖도 그것은 全朝鮮을 外来侵略者들의 손에 내맡기려는 兇惡民族行爲라고 인정한

다>註3) 고 단정했던 것이다. 韓半島의 統一問題에서 이곳에 착잡하게 交錯되어있는 國際關係의 요인을 捨象하려는 그의 非現實的인 發言이 소박한 民族感情에 호소할 수 있다는 한 可能性을 그는 언제나 고려해왔다.

그런데 76年 3月에는 이상과 違 反판으로 그는 <朝鮮問題는 全般的 國際問題의 한부분으로서 朝鮮의 統一問題를 世界情勢와 連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註4) 고 진심을 토로한바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自主的 統一主張 駐韓美軍의 撤去라는 戰術的 圖式은 철저히 고수되고있다.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지 않고 自主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72年의 7·4 南北共同聲明이 合意발표되자 金日成은 이로써 美軍을 韓國으로부터 축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7月4日 李厚洛 서울側共同委員長이 記者들의 質問에 대해 <UN은 外勢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리자 그는 크게 실망한듯하다. 이것은 그에 의하면 <自主의 原則을 거부하는 노골적 언행이었다>註5)

그는 그때를 회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있다. <만일 南朝鮮當局者들이 우리와 마주 앉았을 때에 祖國統一의 問題를 外勢에 依存하여 해결한다거나 나라를 영원히 分裂시키려는 것을 말하였다면 우리는 애당초 그들과 共同聲明을 발표하지 조차 않았을 것이다>註6) 라고. 이로써 그는 南北對話의 目的이 駐韓美軍의 조속한 撤去를 실현하는 一點에 策中되고 있었음을 밝히고있다. 이러한 立場은 統一을 먼 將來의 과제로 보고 그 前提로써 南北間의 緊張상태를 완화하면서 우선 關係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서울側의 立

場과는 根本적으로 對立되는 것이었다.

다음 南北共同聲明에서 合意한 <民族大團結의 原則>을 부정한 것도 金日成에 의하면 <兩朝鮮當局者들>이었다. 그는 民族大團結은 곧 <合作>의 原則으로 인식하였고, 南北調節委員會를 共產主義的戰術에 따라 上部統一戰術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이 점차로 확실해갔다.

그리하여 그는 서울側이 思想과 理念제도의 差異를 초월하여 民族的 大團結의 原則에서 <우리와 合作하려는 용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共產主義를 반대하는 政策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共產主義와 合作하지 않고 共產主義를 반대하면서 어떻게 民族의 大團結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註7) 고 反問한다. 여기서 그가 요구하는 바는 南韓內에서의 共產主義者들의 自由로운 活動을 合法化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에 그는 北韓에서도 共產主義를 반대하고 勞動黨의 路線을 批判할 수 있는 自由를 合法的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요컨대 7·4 南北共同聲明에 의하여 그가 노린 것은 駐韓美軍의 全面的 철수와 韓國內에서의 共產主義選動의 合法化였다. 그리고 그 可能性이 희박해지자 南北對話를 정돈상태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金日成이 30年 이상을 요구해온 駐韓美軍의 철수가 조속히 실현될 가망성이 없음은 그 자신 모르고 있지 않다. 여기서 그가 한결 같이 기대해온 것은 <南朝鮮人民의 봉기>였다. 그는 今年 (1977年) 4月 23日 <說亮新聞> 編集局長의 질문에 대해 <朝鮮의 統一問題는 絶望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絶望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絶望的이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人民은 모두 다 나라의 統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註8) 고 과거 어느때 보다도 궁색하고 意氣소침한 대답을 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統一>이란 물론 共產主義統一을 말한다.

크메르가 敗亡하던 1975年 4月 北京訪問에서 다시 韓半島에서 戰爭이 일어나면 <잃을 것은 軍事分界線이오 얻을 것은 統一>이라고 大言壯談했던 그때의 허세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종전에 되풀이해온 圖式대로 <現時点에서 朝鮮問題의 해결은 朝鮮사람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朝鮮의 統一問題가 해결되려면 무엇보다도 南朝鮮人民들이 각성하여 들고일어나 南朝鮮社會의 民主化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 註9) 라고 統一의 임무를 <南朝鮮人民>에다 맡기고 있다. 그는 韓國內의 在野批判勢力이 하는 일을 마치 自己의 共產主義 統一路線에 동조하고 美國을 반대하는 운동인것처럼 묘사해온데는 戰術上의 意味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그 自身 主觀主義에 빠져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다가 드디어는 그렇게 된것으로 착각하는 側面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2) 카터 大統領에 대한 態度

祖國의 統一은 <美帝侵略者들>과 그 幫자들이들을 그대로 두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일관하여 주장해온 金日成으로서는 人權問題를 강조하며 駐韓美軍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選舉公約을 내세웠던 카터가 美大統領에 당선되었을 때 韓半島의 共產主義統一은 실현단계에 돌입하고 있다고 期待한듯 하다. 이러한 기대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카터는 選舉公約을 할 때 南朝鮮으로부터 美軍을 철거하겠다고 하였으며 人權을 유린하는 政權을 反對하겠다고 하였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를 포함하여 몇개 나라에 대하여 旅行制限조치를 취소한다고 하였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好意的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註10)고. 그런데 金日成은 카터가 選舉公約에 한 말과 그 후 집행하고 있다는 것과는 <差異가 있다>고 의혹과 不滿을 표시하면서 다음 몇가지 點註11)을 지적했다.

(ㄱ) 駐韓美軍의 철거에 있어서 4~5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철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任期 4年을 고려할때 그가 大統領으로 있는 期間内에는 美軍을 철거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ㄴ) 이 경우에도 철거를 地上軍에만 국한시키고 空軍은 그대로 둔다고 하는것은 選舉公約의 위반이다. 왜냐하면 空軍도 軍事力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ㄷ) 駐韓美軍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카터는 韓·日 두 나라 政府의 同意를 얻어 충분한 理解속에서 철거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철군을 反對하는 사람들을 說服시키면서 美軍을 철거한다는 것인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美軍을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인지가 分明치 않다.

(ㄹ) 카터政權은 人權을 탄압하는 政權을 支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위협공갈>하고 있지만 <南朝鮮当局者들>에 대해서는 계속 軍事援助를 주고있으며 軍事演習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選舉公約과 모순되는 일>이다.

(口) 韓·美合同軍事演習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北韓을 놀래우려는 것보다는 주로 南朝鮮人民들을 <위협공갈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南朝鮮反動統治階들로 하여금 人民들에 대한 탄압을 더 強化하도록 助長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人權을 탄압하려는 政權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카터의 選舉公約에 배치되는 행동이다.

여기서 金日成은 마치 大統領의 選舉公約을 중요시하고 감시하는 美國의 民主主義的 有權者의 한 사람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로써 그가 카터에게 촉구하는 것은 썩컨데 駐韓美軍을 空軍까지 포함하여 모두 일시에 그의 任期滿了以前에 韓·日 兩 政府와도 협의할 필요없이 철수시키고, 人權을 탄압하는 韓國政府에 대해서는 軍事援助도 끊고 韓國軍과는 軍事演習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의 말에서 도저히 그 客觀的 妥當性을 찾을 수 없는것은 韓美合同軍事演習이 <南朝鮮人民들을 위협공갈하기 위한것>이며, <南朝鮮統治階들로 하여금 人民들에 대한 탄압을 더 強化토록 助長하기 위한것>이라는 그의 論理이다.

그는 在野勢力을 포함한 <南朝鮮人民들>이 美地上軍의 철수계획에 상당한 우려를 表明하고 軍事演習은 北으로부터의 南侵에 대비하는 한 訓練으로 생각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을 껴꾸로 解 釈하고 있다. 이러한 論理도 다름아닌 그의 主觀主義的 對美認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카터 政權에 대한 이상과 같은 의혹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은 카터 自身에 대한 공격은 애써 삼가면서 結論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 그 까닭은 첫째로 카터가 執權한지 몇 달 밖에 안

됨으로 그가 選舉公約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는 <더 두고 봐야할 問題>이기 때문이다. 註12)

둘째로는 카터政權의 對韓政策에 관해서는 말이 많으나 그것은 카터自身이 아니라 대부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이다. 註13)

金日成은 카터行政府로부터 들려오는 여러가지 對韓政策上의 見解를 놓고 그것이 카터自身の 意見인지 그 아래 사람들의 意思인지를 判斷치 못하여 어떠한 批判的인 말도 하지 않고 있음을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 적어도 77年 4~5月까지는 카터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自己의 태도를 밝혔다.

우리는 카터가 한 選舉公約을 好意를 가지고 대하고 있지만 그가 自己의 選舉公約을 어떻게 이행하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카터政權에 대하여 아직 結論을 내 리기는 이릅니다. 註14)

이 異例的으로 신중한 金日成의 外交的 態度는 앞으로 美國政府와 平和協定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可能性을 전망하고 交渉의 여지를 남겨두고자 함이 分明했다. 그런데 77年 7月 26日 第10次 韓美年例安保協議會가 앞으로 4~5년에 걸쳐 실시될 駐韓美地上軍철수에 따르는 일련의 補強策-美空軍은 계속 殘留하고 증강될것, 情報通信部隊도 殘留할것, 美海軍은 계속 이 地域에 배치될

것, 韓國軍의 增強을 支援할것 -을 發露하게 되자 平壤의 반응은 격렬했다.

<로동신문>은 <안락의 分裂主義者들의 두개 朝鮮造作策動과 戰爭策動을 저지시키고 祖國統一을 앞당기자>는 제목의 長文의 社說로써 카터의 對美政策을 공격하고 나섰다. 註15) 同社說은 <오늘 美國은 大勢의 壓力에 못이겨 南朝鮮으로부터 美軍철수에 대하여 말하면서 空軍과 海軍武力은 그대로 남겨두어 南朝鮮에 대한 軍事的 蠶占을 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日本の 反動勢力>도 駐韓美軍의 철수를 극력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 역시 <美帝의 두개 朝鮮造作책동에 편승한 兩朝鮮政權>을 백방으로 支援하여 韓半島의 分裂을 조장하고 統一을 방해한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美國은 유엔總會의 決議(1975年)대로 核武器를 韓國으로부터 즉각, 완전히 철수시키고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꿀것을 다시 要求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난 속에서도 카터의 이름은 들지 않았고, 카터 政府이후의 美國에 국한해서만은 <美帝>라는 표현대신 <美國>이란 用語를 쓰는 등 세심한 注意를 들렸다. 이것은 金日成政權이 平和協定체결을 위한 對美交渉의 기회를 여전히 모색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3) 對美 平和協定の 方向

金日成은 53年 7月 休戰直後부터 停戰協定을 공고한 平和協定으로 바뀌야 한다는 막연한 口號를 들고 나왔다.

南北赤十字予備會談이 이미 시작되고 있던 72年 1月 10日

金日成은 日本의 <読売新聞>特派員과의 单独会見에서 <南北間の 平和協定>을 체결하는 問題를 제기했다. 여기서 그는 平和協定을 4段階로 나누는 조략한 構想을 발표했다.

즉, 現在의 상황에서 南北이 平和協定을 체결할것-이 條文에서 쌍방은 서로 相對方을 攻撃하지 않을 것을 宣稱할것-다음은 美軍이 撤去할 것-끝으로 쌍방의 軍備를 축소할 것이 그것이었다. 註16) 이 제기는 물론 그의 對南平和攻勢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7.4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고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議가 73年 3月 平壤에서 열렸을때 (ㄱ) 武力增強과 軍備競爭을 中止할 것 (ㄴ) 南北의 軍隊를 각각 10萬 또는 그 以下로 縮減할 것 (ㄷ) 모든 外國軍隊는 撤去할 것 (ㄹ) 外國으로부터 武器, 장비 및 軍需物資의 輸入을 禁止할 것 (ㅁ) 以上の 問題를 해결하고 南北間에 서로 武力行使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平和協定을 체결할 것 등의 5個 항목을 內容으로 하는 平和協定을 제안했던 것이다. 註17) 이것은 平壤側의 소위 南北間の <軍事的合作>의 戰術이었다.

그런데 南北對話가 정돈상태로 빠져들어가자 金日成은 大韓民國政府는 제외하고 美國과 단독으로 現行休戰協定에 대신하는 平和協定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의 對美平和協定の 윤곽이 北韓에서 처음 公表된것은 74年 3月 25日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3次會議) 副總理 許金談의 입을 통해서였다. 그 內容은

첫째, 北韓과 美國은 서로 상대방을 侵犯하지 않을것을 서약하고 武力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할것

둘째, 쌍방은 武力增強과 軍事競爭을 中止하고 韓半島로부터 일

채의 武器와 장비와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것

셋째, 南韓에 있는 外國軍隊는 유엔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 기간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할 것

넷째, 南韓에서 모든 外國軍隊가 철거한 후 韓半島는 그 어떤 外國의 軍事基地나 作戰基地로도 되지 않을것.

등의 4個項目이다. 註18)

이러한 平和的 提案에는 한마디로 大韓民國을 平和의 이름에서 武裝解除시키는 동시에 國際적으로 孤立시킨다는 戰略이 깔려있다.

金日成은 같은날 最高人民會議의 명의로 이러한 平和協定の 구상을 美國議會에 書信으로 전달하고 <肯定的 反應>을 촉구했다. 註19) 물론 美國議會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回答을 보내지 않고 있다.

金日成이 對美 單獨平和協定の 問題를 제기한 것은 美軍철수를 바라지 않는 韓國政府와의 對話를 중단하겠다는 政策을 決定的으로 宣稱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73年 8月 28日의 金英柱聲明으로 南北對話는 이미 중단되어 있었다.

그러나 金日成은 보다 더 合理的인 이유를 平和와 統一의 名分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韓國政府가 73年 6月 23日 <6.23 聲明>을 통해 南·北이 각각 統一될때까지 過渡적으로 유엔에 同時加入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의 제안을 내놓자 얼마 후부터 이것은 <우리民族의 分裂을 永久化>하려는 <充國充族行爲>라는 비난선전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같은 날 金日成은 이에 대항하는 方案으로 <高麗聯邦共和國>案을 제시하면서 南北이 각각 별도로 유엔에 加入하는것을 반대하고

이 單一國號로써 하나의 國家로써 加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註20) 그는 뒤에 와서 對話의 中斷責任을 다음과 같이 南韓 側에 돌리고 있다.

南朝鮮當局者들은……民族分裂을 책동해 오다가 1973年 6月에는 우리나라의 北과 南이 따로 따로 유엔에 들어 갈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것은 우리民族의 分裂을 國際적으로 合法化하고 永久化하려는 속셈을 그대로 들어 내놓은 것이다.

美帝國主義者들이 南朝鮮에서 물러가지 않는 條件에서 당장 나라의 統一은 이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分裂은 合法化할 必要는 絶대로 없는 것이다. ……南朝鮮當局者들이 外勢를 그냥 불드려두고 나라의 分裂을 永久化하려고 策動하는 條件에서 우리는 그들과 對話를 계속할 수 없다.

……나라의 分裂을 추구하는 者들과 마주 앉아 나라를 分裂시키기 위한 會談을 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註21)

金日成은 南北政權간의 對話로서는 자기의 目的을 달성할수 없다는 판단에서 南北調節委員會와는 별도로 南北의 各政黨社會團體代表들과 各界人士들이 참가하는 <民族大會議>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였다. (1973, 6, 23). 이 제의는 上部統一戰線으로 간주해 온 南北調節委員會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下部統一戰線의 조직으로 目的을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시도한 것이었다. 그리고 74年 1月 朴正熙大統領이 내놓은 <南北不可侵定>제외에 대하여 <南朝鮮에 美帝侵略軍을 그대로 남겨둔채> 그러한 協定을 맺자는 것은 <統一問題를 가지고 民族을 희롱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

으며……논의할 價值조차 없는소리 > 註 22) 라고 해서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美國과의 直接協商으로 平和協定을 체결해야 한다는 方針을 생각해 내게 된 것이다. 그가 韓國을 때들리고 체결한다는 對美單獨 平和協定이라는 非現實的 構想을 合理化하는 根拠로서는 첫째로 北韓은 美帝國主義者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美國과 平和協定을 체결해야지 그 어떤 다른 사람들과 체결할 수는 없다는 것, 둘째로 南韓에서 主人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美帝侵略者들> 이요 이들이 南韓에서 모든 軍事的 統帥權을 쥐고 있다는 것, 셋째로 北韓과 現行停戰協定을 체결한 것도 역시 <美帝國主義者들> 이므로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는 문제는 오직 停戰協定체결에 실제적 当事者인 北韓과 美國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註 23)

이것은 韓國을 美國으로부터 孤立시키고저하는 戰術인 동시에 對美平和攻勢의 하나다. 韓國을 美國으로부터 孤立시키고저하는 金日成을 韓國이 共產主義나라들과 國交를 열게 하는 이른바 南北交叉承認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물론이다.

그 論拠로써 그는 (가) 韓國의 <現政權>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統一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分裂을 전제로 한다는 것, (나) 南北이 유엔에 들어간 다음에도 統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며벌이는데> 그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売國者들이 늘 쓰는 手法>이라는 것, (다) 南韓의 <現政權>은 獨立國家들이 對象으로 해야 할 自主的인 政權이 못된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註 24) 그리하여 그는 <우리나라를 두개 朝鮮으로 만들어 永遠히 北과 南으로 갈라 놓으려는 美帝와 그 알잡이들의 이른바 交叉승인이라는 것을

絶对로 찬성할 수 없다>註25)는 断案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가 要求하는것은 韓國의 現政權에 대해서는 어떤 關係도 맺지 말고 <철저히 孤立시켜야 한다>註26)는 것이다.

金日成의 이 완강하고 고루한 政策은 韓半島問題를 合理的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解決을 저지하려는데 目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그의 政治的 目標가 美国이나 韓國政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対立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의 요구는 美国이나 韓國은 결국 그 앞에 無条件 항복하고 南韓을 北韓에 넘겨주는 절차에 서명하라는 말과 同一하다. 그가 南北對話를 再開할 수 있는 條件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이것은 여실히 알 수 있다.

.....만약 南朝鮮当局자들이 <反共>의 口号를 버리고 南朝鮮民主主義人等들에 대한 탄압정책을 취소하며 <두개朝鮮>을모를 그만두고 統一을 진심으로 염원하며 軍事力을 증강시키지 않고 外國軍隊를 南朝鮮에 붙들어두는 政策을 포기하며 南朝鮮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놀음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民主共和黨과도 對話를 할 수 있습니다. 註27)

(4) 对美平和協定の 問題点

金日成이 이상의 要求條件에 相應하는 조치를 北韓에서도 取하면서 했다면 그의 말은 合理的일 것이다. 그의 말은 그가 對話再開의 可能性을 南쪽에 던져주고 있는듯이도 보이지만 사실은 韓國政府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미리 계산하고 한 말에 틀림없다.

그는 南北對話중단의 責任을 韓國의 <現政權>에 다 集中的으로 돌리고 있지만 어떤 韓國의 政權도 그의 全面的인 駐韓美軍의 철수 주장과 共產主義統一의 戰略戰術을 수락하지 않을 때는 現政府에 대한 것과 똑같은 규탄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의심의 余地가 없다.

한편 美國政府에 대해서도 그는 받아 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해 왔다. 美國이 그 同盟國인 大韓民國을 제쳐놓고 北韓과 단독으로 교섭하여 對美平和協定을 체결 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大韓民國은 韓半島의 半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全人口 5千萬中 3千5百萬이 韓國의 國民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世界의 近 1百 개 나라들과 外交關係를 맺고있다. 이러한 同盟國을 美國이 무시하고 北韓과 단독으로 平和協定을 체결 한다는 것은 國際信義에 앞서 現實主義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共和黨의 포드 行政府도 金日成의 平和協定案을 일축해 왔고 民主黨의 카터 行政府도 第10次 韓美年例安保協議會共同聲明에서 <美國은 韓國의 참여 없이는 北韓과 韓半島의 歸來에 관하여 어떠한 交涉도 하지 않을 것을 再確認 한다>고 言明했다.

金日成이 기대를 걸어온 카터 大統領의 이러한 對韓조치에 대해 그가 앞으로 어떻게 対応할 것인가는 크게 注目을 끄는 問題다. 그는 여러 차례 카터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보아야겠다>는 말을 했다. 과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金日成의 對美單獨交涉이 實現될 수 없다면 키신저가 제안한 <4者會談>을 통해 問題解決에 접근할 수 밖에 없지만, 이것은 韓國政府의 代表의 同席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金日成의 배척을 받아왔다.

그는 中·소·美·日의 北과 南에 대한 交叉承認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分裂을 前提로 하는 그 어떤 形態의 움직임도 絶대로 許容할 수 없다(註28)고 斷定한 바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分裂>이란 南北의 두 政權의 現實的 政權을 인정하는 國際的 조치를 뜻한다. 美國은 金日成이 반대하는 南北韓의 同時 加入, 南北韓에 대한 交叉承認, 韓半島問題에 관한 當事者會議, 南北對話의 再開를 찬성해왔고, 金日成은 美國이 반대하는 北韓·美 平和協定の 체결과 이것을 위한 對美交涉을 제의해왔다. 카터政權이 들어섰다고 해도 美國의 그러한 立場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한편 金日成의 主張도 고수될 것이다. 이 兩者間의 根本的 差異는 사실상 美·北韓間의 타협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美國은 韓國과 더불어 韓半島의 주어진 現實을 그대로 시인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統一問題를 뒤에 미루면서 이 地域의 平和와 그 前提로써의 大韓民國의 安全保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金日成은 統一의 실현을 絶對的인 急先務로 제기하고 現實을 무시하면서 大韓民國의 安全保障을 弱화시키는 方向에서 現狀打破를 추진하고 있다. 美國이 自己의 戰略을 좀처럼 추구하지 않을 것을 간취한 金日成은 <南朝鮮革命>에 의하여 南韓에서 그가 <人民의 政權>, 또는 <民主主義政權> 더 明白히는 <人民民主主義政權>이라고 부르는 親共產主義政權이 수립되는 것을 하나의 打開策으로써 확신하고 또 그것을 계획해왔다. 그러나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것과 동시에 國際的 <革命力量>의 聲援에 의하여 美國에 壓力을 加하고, 美國을 國際的으로 고립시키는 戰略을 집요하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美-中共의 급속한 接近과 相互關係

의 深化에 起因하는 國際情勢의 一大 轉換은 그에게 큰 타격이 아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世界人民들>에 다 希
 冀을 걸면서 今年(77年) 4月の <脫亮新聞>과의 談話에서는
 <우리는 情勢가 어떻게 流動하든지……世界人民들이 美國의 朝鮮
 에 대한 부당한 分裂政策을 반대하고 朝鮮의 統一을 지지하는 목
 소리를 더욱 높인다면 朝鮮은 반드시 統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말했다. 그가 그러한 <世界人民들>의 支持를 얻기 위하여
 對外宣傳에 막대한 財力을 투입하고, 더욱이 非同盟들에 대해 積
 極的인 工作을 해왔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다. 그것이 奏效
 하여 75年 8月에는 非同盟國會議에 會員國으로 가입할 수 있
 었고 그해 가을 유엔總회에서 對美平和協定 체결 촉구를 포함하는
 北韓支持決議案이 이와對立되는 大韓民國支持決議案과 더불어 채택
 되었다. 이에 대해 金日成은 유엔의 決議를 몹시 존중하는 양
 <美帝>가 유엔總회의의 결의도 무시하고 平和協定을 체결하려 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다. 즉, <美帝國主義者들에게
 는 유엔總회의의 決定도 소용이 없다. 美帝國主義者들은 오직 저
 들이 말하는 것만 法이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法이 아니
 라는 것이다. 美帝國主義者들이란 바로 이렇다> 註29) 고. 그런데
 이때 그는 1946年 이래 1975年까지에 韓國問題가 유엔에 상정
 될 때마다 예외없이 통과된 總회의의 決議案을 자기가 無條件 거
 부해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고, 75年度에도 北韓支持決議案
 뿐만 아니라 韓國支持決議案도 동시에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모르
 는채 했다. 이것이 유엔의 權威와 權能에 대한 그의 인식태도
 다.

한편 北韓의 對美平和協定체결 交渉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억측이 나돌고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포드行政府때에는 美·北韓의 공식접촉은 없었고, 있었다면 유엔을 媒介로 한 非公式接觸이 약간 있었을 것이며 美國은 어떤경우에도 韓國政府를 격노케할 言質을 北韓側에 주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金日成은 美國議會에 대해 平和協定問題를 가지고 會談할것을 제의한지 2年이 지나도록 대답이 없다는데 不滿을 表示했다. 그리고 美國이 北韓과 더불어 平和協定을 체결하려 하지 않는것은 <우리나라의 統一을 가로 막고 우리나라를 永遠히 分裂시키려는데 目的이 있는것으로 생각한다>註 30) 고 政治的 公세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美國과 會談이나 접촉을 가지고 싶어하는 생각을 숨기지는 않았다. 카터行政府가 출범하면서는 그런 생각은 더욱 굳어져 갔을 것임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가 公言하는 바로는 美國과의 會談또는 接觸은 <어디까지나 平等的 立場에서 하려고 하지 그들에게 求乞하는 形式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北韓은 벌써 美國에 平和協定체결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美國當局者들로 부터는 아무런 肯定的 反應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구태어 그들에게 빌면서 對話의 門을 두드리려고는 하지 않는다>註 31) 는 것이 金日成의 포드時代의 태도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카터時代를 통해서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다만 이 時刻 현재로서는 카터의 動態를 觀望하면서 확실한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5) 対日 基本立場

끝으로, 金日成의 對美基本立場과 不可分離의 關係에 있는 것은 그의 對日本立場이다. 美國과 日本의 歷代政府가 韓國의 安全을 日本의 安全에 <緊要>한 것이 아니면 <重要>하다고 인식해왔고 韓半島의 問題를 日本의 問題와 直結시켜 생각해 왔음은 주지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韓半島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當擧國會議를 美國이 제의할 때는 日本을 그의 한 當事者로 想定해 왔음은 비밀이 아니다. 지금까지 韓半島의 北方에서 蘇聯, 中共, 北韓의 3角關係가 형성되어온데 대해 南方에서는 美國, 日本, 韓國의 3角關係가 형성되어왔고 韓·日關係는 1965年の 國交正常化이후 급속도로 擴大·深化되어 갔다.

日本은 韓國에 대해 美國의 <代役>까지는 말지 않았고 또 말을 수도 없지만 韓日兩國은 肯定的 側面과 否定的인 側面을 모두 總括하여 經濟的으로나 政治的으로나 깊이 結聯되어왔다. 그 결과로 韓國에 있어서 日本은 美國 다음에 가는 重要な 나라로 되었다. 이러한 韓日關係에는 많은 問題點들이 內包되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韓·日關係의 深化는 金日成에게는 勢力均衡上 尙대 한 위협으로 感知되고 있다.

金日成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対応措置로써 韓·日國交正常을 저지하는데 최대 한의 政治力量을 投入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韓國內에서 전개되었던 <韓日會談反對運動>과는 目標나 性格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 韓日基本條約이 체결되면서 두 나라간의 國交가 正常化되자 金日成은 이것을 既定事實로 인정하는 위에서 韓國과 日本간, 美國과 日本간의 關係에 다 각각 썩기를 박

아 서로 離間케 하는 한편, 北韓은 주로 日本의 野黨과 與黨內의 非主流를 통하여 日本에 接近함으로써 南方3角關係의 機能에다, 混亂을 일으키는 政策을 취해왔다. 그리하여 그는 在日朝總聯을 媒介로 하여 朝·日友好促進議員聯盟, 日朝貿易會등을 조직하고, 社會黨과 公明黨의 代表團과, 美濃部東京都知事 및 日本全國革新市長會代表團, 그리고 각종 社會團體代表들을 수시로 北韓에 초청했다. 그 위에 日本의 主要新聞 雜誌 텔레비전, 記者들의 入北도 허용했다. 이른바 <人民外交>型的 工作을 전개해온 것이다. 이러한 工作은 日本政府가 北韓과의 무역을 촉진하는 사실상의 南北韓 等 距離外交를 생각하고있는 條件에서는 꽤 容의하게 一定한 成果를 거둘 수 있었다.

金日成은 日本政府와 與黨(특히 主流)에 대해서는 <日本軍國主義의 復活>, <帝國主義>등의 비난으로 強硬路線을 견지하는 한편 日本<人民들>에 대해서는 회유와 親善의 손을 뻗쳐 日本 有權者들의 壓力에 의하여 日本自民黨 政府로부터 양보를 받는다는 戰術을 적용해왔다. 그는 北韓·日本간의 關係를 항상 美國과의 關係에서 파악하고 <美國이 日本에서 손을 떼야 朝·日 두나라 關係가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展望한다. 왜냐하면, 日本政府는 우리나라를 <두個朝鮮>으로 分裂시키려는 <美帝>의 路線에 따라 움직이고있는 條件에서는 두 나라의 關係를 改善할 方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요컨대, 그가 바라는 바는 日本政府가 美國의 對韓支援政策을 반대하며 자기의 共產主義統一路線을 지지해 달라는 것이며, 그렇지 않는한 日本과의 關係改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日本政府가 이런 그의 希冀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

모로 두 나라의 關係改善을 日本政府에 제기해 봐야 <所用이 없
는일>이요 그럴 <必要도 없다>고 그는 일단 단념하고 있다.
그대신 그는 北韓에 대한 日本의 非友好的태도는 日本<人民>의
意思가 아니라 美國의 意思며 <美國을 추종하는 少數 日本反動들
의 所行>이라는 견지에서 日本<人民들>과의 親善 團結을 계속
강화한다는 意志를 표명한다. 이상이 적어도 1976年 봄까지의
그의 日本에 대한 基本的 立場이었다. 註32)

日本의 三木政權이 福田政權으로 교체되자 金日成은 우선 <더
두고 보아야 하겠다>는 태도를 取하면서 별로 期待를 걸지는 않
고 있는것이 확실하다. 종래의 日本政府는 한결 같이 對美追終政策
을 실시해왔는데 이와는 반대로 새 政府(福田內閣)가 <自主性>
을 가지고 나간다면 北韓에 대한 政策에도 새로운 變化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 새政府도 <南朝鮮反動統治者들>과 깊은 유착관계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北韓과의 關係에서 특별한 進展이 있으리
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展望하고 있다. 註33) 그리하여 그는 北
韓-美國의 關係改善을 北韓-日本의 關係改善의 先行條件으로 간주
하고 있으며, 韓半島가 統一되기 전에는 日本政府가 北韓과의 關係
를 지금 이상으로 發展시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断定한다. 註34)

그가 現時点에서 日本政府에 기대하는것은, 美國이 北韓에 대한
旅行禁止를 취소한 이상 日本政府도 이에 相應하도록 北韓과 人
事往來와 文化交流나 좀 더 擴大하지 않겠는가 하는 懸을 넘지
않는다. 註35)

金日成은 日本政府에 대하여 北韓과만 關係를 가지고 韓國과의
關係를 끊으라고 하는것은 <無理한 要求>라고 시인하면서 다만

日本政府에 바라고 싶은 것은 <朝鮮의 統一을 방해하지 않는 政策만 실시하여도 좋겠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 政策은 <南朝鮮反動들과 같이 美國軍隊가 南朝鮮에서 영구히 주둔할 것을 要求하지 말며 南朝鮮에서의 人權彈壓策動을 옹호하는 行動을 하지 않으며 또 兩朝鮮反動統治階級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註 36) 이다. 그중에서도 核心은 駐韓美軍의 問題다. 그는 日本政府가 그러한 自己의 希望을 들어 줄수는 없지만 日本의 歴代政權이 北韓에 대해 韓國政府가 반대해온 實利主義的 對北韓接近 政策에 호응을 맞추면서 北韓·日本간의 民間漁業協定체결, 文化交流, 貿易連絡事務所의 설치를 積極的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韓·日 두 나라를 離間시키는데 奏效할 것으로 그는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對日現實主義政策에 의하여 그가 노리는 것은 韓·日基本條約은 자기의 힘으로 폐기할 수도 없고 變更시킬수도 없는 현재의 條件에서, 日本과의 經濟交流 文化交流를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면서 日本으로 하여금 南北韓에 대한 실질적인 等距離外交政策을 취하게 하려는 것이 명백하다. 金日成의 이러한 構想은 日本政府가 美國政府와는 달리 北韓에 대한 實利追求에 예민한데다가 總選舉때마다 自民黨의 勢力이 下落하는데 따라 全部는 아니지만 北韓에 同調하는 在野勢力이 進出해왔다는 사실에 의하여 實現될 展望이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第 1 章 註

- 註 (1) 金日成이 日本 <世界>誌 編輯長과 1976年 3月 28日
의 <談話>. 이것은 <로동신문> 1976年 5月 14日字
에 실렸다.
- 註 (2) <로동신문>, 1970年 8月 22日 社說에서.
- 註 (3) <김일성 저작선집> 4, 1968年, 평양, p. 536.
- 註 (4) <로동신문>, 1976年 5月 14日字 前記<談話>.
- 註 (5) 同上.
- 註 (6) 同上.
- 註 (7) 同上.
- 註 (8) <근로자>誌, 1977年 5호, p. 6.
- 註 (9) 同上.
- 註 (10) 同誌, p. 5.
- 註 (11) 同誌, p. 5~6. 金日成은 1977年 6月 20日 <르·몽
드>紙의 앙데레·폰멘느記者와의 談話에서도 거의 같은 內
容의 말을 했다. 談話內容은 同紙 1977年 6月 26~
27日字에 게재되어 있다.
- 註 (12) 同誌, p. 5.
- 註 (13) 同上
- 註 (14) 同誌, p. 6.
- 註 (15) <로동신문>, 1977年 7月 27日.
- 註 (16) <読売新聞>의 高木 및 佃特派員의 1972年 1月 10日
金日成會見記도 1月 11日字에 실려 있다.

- 註 (18) <로동신문>, 1974年 3月 26日.参照
- 註 (19) 同上.
- 註 (20) 同紙, 1973年 6月 24日.
- 註 (21) 同紙, 1976年 5月 14日.
- 註 (22) 同上
- 註 (23) 同上
- 註 (24) 同上
- 註 (25) 同上
- 註 (26) 同上
- 註 (27) <근로자>誌, 1977年 5月号, p. 6~7.
- 註 (28) <로동신문>, 1976年 5月 14日.
- 註 (29) 同上
- 註 (30) 同上
- 註 (31) 同上
- 註 (32) 同上
- 註 (33) <근로자>誌, 1977年 5号, p. 7.
- 註 (34) 同上.
- 註 (35) 同誌, p. 8.

第2章 美國의 對敵性國接近類型

(1) 美·中共의 接近

핑퐁外交前의 접촉

美國과 中共의 화해의 전환점이 된 것은 이른바 「핑퐁外交」였다.

1971년 3~4월 日本 名古屋에서 열렸던 3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이 대회에 출전했던 中共탁구팀은 4월 9일 美國탁구팀을 中共에 초청했고 美國팀은 즉각 이를 받아들여 美·中共接近의 신호인 「탁구外交」의 막이 올랐던 것이다. 美國탁구팀은 49년 中國 본토에 中共政權이 들어선 이래 22년만에 처음으로 中共大陸을 밟은 스포츠팀이 되었다.

이에 대해 「美國 국무성은 7일 美國탁구선수대표단에 대한 中共의 본토방문요청을 환영했다」^{註 1)}

美國탁구팀의 中共방문을 요청받은 그날에 즉각 美國팀이 이를 수락하고 또 국무성에서도 같은날 즉각 이를 환영한것은 美國의 對中共接近의 熱度를 말해주는 것으로 중요시되었다.

비록 「핑퐁外交」가 美·中共國交로 향하는 출발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美國과 中共은 여러해동안 접촉을 해왔고 「핑퐁外交」가 있기 1~2년전에는 美國측의 태도변화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美國과 中共이 대화의 파이프라인을 본 것은 1955년 8월이었다. 존슨 駐在 美國대사와 王炳南駐 폴란드 中共大使간에 美國人 억류자

문제와 台灣문제 등 현안문제를 놓고 회담이 시작되었으나 57년에 이 회담은 일단 중단되었다. 약 10개월의 중단후 58년 9월부터 회담장소가 바르샤바로 옮겨져 재개되어 회담총수는 쯔·존슨 1次(会谈이라 69년말까지 1백 37회에 이르렀다. 註 2)

그러나 美·中共大使会谈은 国交를 전제로한 회담의 성격보다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듣는 일종의 探索会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美·中共의 접근은 69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美國과 中共의 政策변화의 조짐이 들어나게 된다.

우선 닉슨前美國大統領의 닉슨·독트린을 들 수 있다. 69년 7월 2일 캄보에서 發表한 美國의 淸아시아外交에 관한 이 새로운 原則은 美國의 淸外軍事介入의 중지부를 적는다는 점이 밝혀진 것으로 이것은 美國의 越南撤収의 신호였으며 中共은 이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註 3)

이같은 정책발표가 있기前에 닉슨行政府는 中共과의 접근을 위한 基本에 두리틀 잡아놓고 있었다.

69년 1월 20일 大統領에 就任한 닉슨大統領은 就任 10일후에 中共과 접촉하고 대화의 광장에 中共을 끌어 넣도록 지시했다. 註 4)

이 사실은 71년까지 비밀에 붙여졌지만 이배경설명이 발표되면서 함께 밝혀진 내용을 보면 「닉슨大統領에 의한 2년간의 정지작업과 3개월의 준비의 결정」이 닉슨의 中共방문을 가능케했던 것이다.

닉슨은 69년 취임한지 얼마안되어 2월 23일부터 유엔 5個國을

訪問했는데 이때 드골프랑스大統領과 3회 회담을 했다. 또 그후
닉슨大統領은 드골大統領이 3월 31일 아이젠하워前美大統領의 장례차
워싱턴에 왔을때도 白頭館에 맞아들어 회담을 했다.

당시에 닉슨이 드골과 만나 論議한 問題중 重要의제중 하나가
中國문제였던 것으로 分析된다.

이런 추측은 그후 닉슨행정부가 연달아 취한 일련의 對中共완화
조처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프랑스의 로벨 기랑記者는 닉슨訪問결정
후 이 문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드골大統領은 닉슨大統領으로부터 다음 두가지 점에서 중대한 의
미를 파악했다. ① 닉슨은 美軍을 越南에서 철수시키려하고 있다.
② 닉슨은 中共승인과 中共의 유엔加入으로까지 나갈 결의를 하고
있다. 이 정보는 아마 워싱턴의 完全한 同意下에 中共政府에 전
해졌지만 北京의 最初의 反應은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다.」

닉슨독트린은 드골을 통해 美國의 뜻을 일차 전달한 뒤에 나온
發表라는 점이 重要하다. 이와 並行하여 일련의 對中共緩和政策이
수행되었다. 닉슨大統領은 東南亞諸國순방 직전인 7월 23일

① 對中共貿易制限을 부분적으로 緩和했고 ② 美議員, 저널리스트,
교수, 학생, 과학자, 의사, 美赤十字대표 등의 對中共여행제한의 緩和
政策을 썼다. 또 로저스美國務長官은 이 시기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中國과의 진지한 對話」를 촉구하고 있었다.

또 닉슨은 東南亞를 방문한후 루마니아를 訪問하여 對中共관계개
선의 뜻을 암암리에 보였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國家評議會議長
은 蘇聯의 체코侵入을 비판, 獨自路線을 밝으며 中國과의 협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다. 어구나 45년 무르벨트大統領이 안타會

談에 출석한 이래 美国大統領으로서는 처음있는 共產黨 국가 訪問이었다.

美国의 对中共接近중 닉슨의 中共訪問이 실현되기 이전의 과정에서는 友邦國이나 또는 中共과 親密한 國家의 국가원수가 美·中共 접근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도움을 주었다.

앞서 지적한 드골과의 회담이나 닉슨의 루마니아訪問외에도 닉슨 대통령은 中共과 깊은 友好관계에 있던 파키스탄의 야야칸大統領과 70년 10월 25일 회담했으며 26일에는 루마니아國家評議會議長 차우세스쿠와 會談했다.

또 71년 3월 15일에는 中國에 대한 여행제한을 全廢했다.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은 「평평外交」를 수락한 4월에 결정지어졌고 그인선이나 細目은 닉슨자신에의 의해 5월에 결정됐으며 7월에는 9일부터 11일까지 키신저가 中共에 비밀리에 訪問해 있었다.

그간에도 美国은 연달아 对中共緩和政策을 발표했는데 大統領特別聲明에 의한 中共과의 직접 무역완화등 5개항의 措置發表(4월 1日) 中共과의 거래에 있어 달라使用制限의 撤廢(5월 7日), 非戰略物資의 对中共수출제한의 해제(6월 10日) 中共과의 관계정상화를 호소한 케사스시티의 닉슨談話(7월 6日)가 그것이다.

美·中共의 접촉과정을 통해보면 大略 다음과 같은 특성을 꼬집어낼 수 있다.

- ① 어느쪽이 먼저 接近의 신호를 보냈건간에 접촉과정에서 美国側의 对中共態度變化를 示唆하는 对中共완화조치가 두드러진 점
- ② 키신저 補佐官자신이 직접 비밀리에 北京을 방문하여 닉슨訪

중의 세무적인 문제를 다룬점.

③ 美国大統領은 美国의 友邦 및 中共과 가까운 국가원수들과 직접 만나서 美国과 中共관계개선문제나 이에 관련된 문제를 직접 간접으로 論議한점.

④ 접촉이전이나 이후를 통해서 中共의 外交戰略은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에 美国側은 外交政策의 대폭적인 수정을 보인 점을 들 수 있다.

당초 55년의 반동에서 열린 第1次 A A회의때 美·中共대사회담 제의를 받은 미국은 신중한 태도였지만 영국, 印度 등의 압선을 거쳐 7월 25일야 겨우 「民間人帰国問題와 실질문제에 관해 양국은 제네바에서 대사회담을 연다」고 성명했다. 그러나 핑퐁外交를 전후한 시기의 美国의 對中共접촉은 분명히 美国의 이니시에이티브에 의한 것으로 앞서의 美·中共대사회담 시작때와 대조적이다.

이는 美国측의 對中共基本外交姿勢의 수정으로 드러난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美国의 對中共관계를 수정시킬수 있는 일련의 對內外的인 변화도 있었다.

文化革命동안에 경화되었던 外交政策에 文化革命이 수습되면서 다시 軟化하기 시작한 中共국내정치상의 변화를 그중 하나로 들 수 있다. 특히 中共의 경우는 內政이 外交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밀도가 짙은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같은 中共의 국내정치 변화는 美·中共관계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外交軟化의 징후는 69년 4월에 열렸던 중국공산당전국

대표대회 (九全大會)이래 갑자기 두드러졌다.

우선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상의 鬭爭은 끝까지 계속하나 外交關係正常化는 별도라며 69년 10월이래 소련과의 국경 회담을 재개한 점, 그리고 修正主義의 기본이라며 심한 비난을 퍼부어온 유고슬라비아와의 外交관계를 회복하고 대사를 교환한 점 들 수 있다. 이상은 비록 理念上蘇聯과 심각한 문제가 있기는 하나 같은 社會主義를 표방하는 나라들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그 밖에도 캐나다와의 外交관계수립교섭에서 台灣은 中國의 不可分の 영토라는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지 않고 캐나다가 中共의 주장에 「留意」하는선에서 妥協한 점은 中共의 外交자세가 軟화된 뚜렷한 증거였다.

또 쿠웨이트 카메룬 오스트리아들과의 外交관계수립에는 그런 조건을 완화해서 台灣문제에는 터치하지 않고 中共이 中國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하게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外交姿勢가 유연해지기는 했으나 그들의 外交的基本路線은 바뀌지 않았다. 中共의 外交基本原則의 테두리안에서 행해진 것이다. (註5)

「本質的 장애 제거의 樣式」

닉슨大統領의 北京訪問결과로 발표된 共同콤뮤니케이 (72년 7월 27일)는 台灣을 포함한 모든 中國人이나 중국은 하나이며, 台灣은 中國의 일부라는 주장을 美國이 인정한 것이었다. 또 中國人자신에 의한 台灣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台灣의 모든 美軍부대 및 시설의 撤收를 최종목표로 긴장완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삭감할것을 美國이 표명한 것이었다.

上海에서 발표된 이 共同콤뮤니케는 말하자면 美·中共의 國交를 再開하기에 앞서 양측이 앞으로 國交前에 취할 조치들과 美·中共의 접근상 필요로 하는 條件이 示唆된 것이었다.

上海콤뮤니케가 美·中共관계에 주는 중대한 變化는 美國이 中共을 唯一合法政府로 인정한 점이다.

이것은 美·中共관계의 基本的인 變化일뿐아니라 美·國府政府와의 관계의 중대한 變化이다.

美國은 닉슨의 中共訪問後에도 오랜벗은 버리지 않는다며 台灣과의 防衛條約의 외무수행을 거듭 다짐했다.

그러나 美國은 닉슨의 中共訪問에 앞서 이를 수락한 과정에서 이미 台灣을 버릴 것은 결정한 것으로 分析된다.

「닉슨大統領이 中共訪問을 결정한 것은 당장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곤란하다 하여라도 越南撤兵과 台灣을 매어버릴 절의를 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註6)

이같은 美國의 意圖는 美國이 中共과 어떤 方法으로 접근할 것인가하는 윤곽이 밝혀지면서 점점 더 뚜렷해졌다.

美國은 中共과의 國交를 맺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4가지중 한가지 方法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① 「總領事方式」... 즉, 中共의 國交三原則을 받아들여 美國과 中共의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고 美國은 台北에 총영사관을 설치해서 地域的관계를 유지하며 美國의 台灣지구에 있어서의 각종의 비정치적관계와 活動을 확보하는 방식

② 「연락사무소方式」... 즉 美國은 中共과 國交를 수립하고 台灣과는 단교하지만 그러나 워싱턴과 台灣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일

중의 準外交관계를 유지하고 美·華공 동방위조약의 存廢는 실제 상황과 그후의 答판에서 결정하는 방식

③ 「独逸方式」... 즉 美国과 中共과 국교를 수립하지만 美国은 여전히 台湾과 각종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④ 「日本方式」... 이것은 72년 日本이 中共과 外交관계를 맺은 방식으로서 中共과 관계정상화를 하며 동시에 台湾과는 斷交를 하고 美華防衛條約을 「자연失効」에 맡기고 「台湾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이다」라는 中共의 입장을 존중하며 台湾과는 무역, 문화교류의 인적교류등 비정치적관계를 유지하고 台湾을 政治的实体로는 보지않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중 日本方式을 채택할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것은 中共이 받아들일수 있는 唯一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美国側에서 이런 방식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미 작년에 나타났다.

작년 9월 21일에서 10월 12일까지 中共을 訪問했던 맨스필드上院民主党院内總務는 中共이 요청하면 中共에 무기를 수출해야 한다고 말한다음 上院外交위원회에 제출된 11월 21일자 보고서에서

① 日本方式으로 台湾과의 外交軍事관계를 단절하고 美·中共국교수립을 서둘 필요성을 강조했다.

(2) 美·越南의 接近

美国과 越南社会主義共和国의 接近은 越南共和国이 소멸되면서 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1965년 美軍의 본격적인 개입으로 시작됐던 美國과 北部越南의 戰爭이 1973년 1월 27일 「越南에 있어서의 戰爭종식과 평화회복에 관한 協定」이 맺어지면서 끝이 났다.

그러나 美國과 北部越南간의 戰爭은 이 協定으로 끝이 났지만 美國의 被보호국인 越南共和國과 越南인민공화국간의 동쪽끼리의 戰爭이 뒤이어 일어나므로서 美國과 北部越南의 접근은 그 가능성도 희박했고 修交를 전제로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南北越南의 戰爭이 1975년 4월 30일 越南共和國의 항복으로 종식되고 北部의 政權과 노선을 같이하는 政權이 南쪽에 대신 들어서면서 美國이나 北部越南이 접근하는데 있어서 本質적인 장애요인은 사라졌다.

1976년 2월 21~22일 사이공에서 전국선거관리위원회가 열리고 4월 25일 南北越南통일선거를 실시기로 결정을 보아 7월 3일 南北統一越南의 발족을 보게 되었지만 美國과 現越南의 接近은 統一越南樹立 훨씬전에 있었다. 南北統一 1년이상 전이며 사이공政府가 崩壞된지 1개월이내였다.

「관 반 동首相은 성명을 통해서 美國과 양국간문제해결점을 찾기 위한 토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 동首相은 美國하원의원 27명이 75년 5월 22일 발송한 서한에 대해 6월 21일 발송한 答覆에서 이같이 말했다. 동首相은 이 답서에서 越南戰에서 실종된 미국사람의 소식에 관한 파리越南平和協定の 條文을 실행하는데 있어 越南人民共和國의 호의를 강조했다」(註1)

美國과 越南人民共和國의 접촉은 美軍실종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美의원단의 서한과 이에 대한 답신이 있었고 이어 75년 9월 2일

팜 반 동首相의 전국 30주년기념연설에서 對美관계개선을 강력히 시사했다. 美國의 접촉을 위한 신호와 越南人民共和國의 호의적인 反應을 보인 이 초기단계에서 國交를 전제로한 교섭의 징후는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 그러나 國交前의 교류형태인 경제교류를 바라는 공산월남의 뜻은 밝혀졌다.

「1975년 사이공政府 폐망후 첫유럽訪問을 했던 하노이 지도자들은 美國과의 통상관계를 열고 (월남의) 연안유류탐사권을 美國의 대회사에 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註2)

양국간접촉은 美의원단과 팜 반 동首相간의 서신이 오고간지 6개월후인 75년 12월 6일 通信交流에서 人的接觸의 단계로 들어갔다. 길레스피 몽고메리議員을 단장으로 하는 美國하원 특별조사위원회위원과 프랑스駐在越南人民共和國 보 산 승大使가 파리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첫對座에서 양측이 바라는 문제가 벌써 부각되었다.

美國側은 越南戰에서 실종된 美軍병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를 원했고 越南人民共和國側은 美國이 휴전협정때 약속한 전후복구문제를 다루기로 希望했다.

양측이 接近하게된 배경을 自國의 내정적인 측면과 對外的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본다.

우선 越南側의 대내적인 측면은 越南의 전후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필요성이다. 10여년에 걸친 戰爭으로 입은 산업의 막대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본의 문제. 이것은 統一을 이룩하고 난후는 그 규모도 더욱 확대되었고 이러한 절실한 現實的인 요구가 과거의 거의 敵國이며 이제올로기상으로 용납될수

없는 그들로 하여금 對美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하게된 要因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이같은 절박한 共產越南의 상황은 그들의 統一越南을 위한 스케줄은 완성되었지만 公式的으로는 統一越南의 발족수개월전에 가진 美國과 共產越南과의 회담에서 분명히 떠올랐다.

「美國이 최근 越南戰중 실종된 美軍에 관한 정보를 봉고해주도록 요구한데 대해 共產越南은 베트남再建에 대한 美國의 원조를 거듭 요구했다」註3)

이같은 美國과 共產越南의 접촉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共產越南側이 자기네側의 요구를 美國과의 접촉을 통해서 제시하면서 접촉과정에서 파리平和協商을 하는 동안과 같은 강경한 자세로 임하지 않고 異例的으로 성의있게 접촉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共產越南이 美國과의 접촉을 美國에 못지 않게 열망하고 있다는 하나의 反証이기도 하다.

越南共和國이 패망한이후 南에 생긴 정권과 北의 정권이 통합되기 이전부터 統一을 전제로한 복구전략은 서있었고 1975년 11월 14일에서 21일까지 열린 민족통일정치협의회에서 그 기본방침이 밝혀졌고 統一越南의 복구계획도 서있었다.

이 회의에서 越盟政治局員 투루옹 친은 완전한 통일과 국가경계의 전적인 발전을 조속히 실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南에서 「건설」과 「개혁」을 병행하는 것이 黨의 생각임을 분명히했다.註4)

1976년도에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만한 원조가 共產越南에 들어 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액수는 대략 1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중 반정도가 소련에서 얻은 원조이다.註5)

그러나 共產越南의 기본노선은 越南戰의 전기간을 통해서 中共과 소련간의 중립을 지키며 独自の 路線을 걷는 것이었고 이같은 소련원조에 대한 편중된 의존도는 자연히 소련의 영향력을 더욱 깊게 받게 되는 要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共產越南이 더 이상의 소련의 영향력을 안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화시키는 他國원조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상대국을 美國으로 선택한 것으로 分析된다.

이러한 假定에서 출발할때에 越南共和國崩壞이후의 越南에서 벌인 일련의 外交的 路線의 修正現象과 절맞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外交軌道의 수정이 그들의 基本的인 노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련, 東歐, 쿠바, 中共 그리고 같은 인도차이나 半島의 캄보디아, 라오스등 社會主義諸國과의 「연대와 友好」가 외교목표제 1 위인것은 그전과 다름없다.

그러나 적어도 對美姿勢와 對아시안 자세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南北統一政府가 발족된지 이틀후인 76년 7월 5일 구엔 두이 트린外相은 東南亞諸國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4個原則을 發表했는데 ① 상호독립 주권존중, 영토보전 내정불간섭 및 평화공존 ② 타국에 대한 직접간접공격 및 개입기지로써의 영토사용금지 ③ 경계문화교류등 우호선린관계수립 및 협상을 통한 분쟁의 해결 ④ 각국의 특수상황을 유지하면서 域內諸國間의 협력강화이다.

이 對 아시안諸國과의 관계개선은 그것 자체가 美國에 대한 敵對태도 완화를 강력히 示唆하고 있다.

즉 종래에 일관해서 주장해오던 東南亞에서의 美軍기지 전면철폐

주장 대신에 「外國에 대한 침략기지로 領土 不提供」으로 완화된 것은 앞으로의 對美接近을 위한 포석의 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美國側은 對內的으로는 越南戰의 상처의 흔적을 조속히 씻어버리고 매듭짓겠다는 국내정치상의 요구와 越南戰이후 東南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 공산越南이 떠올르므로서 이루어져가고있는 東南亞에 있어서의 힘의 構造的變化에 対応키 위한 對東南亞外交戰略上 필요에 따라 공산越南과의 接近을 試圖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越南戰後의 문제 처리과정에서 떠올른 것은 생사를 알 수 없는 美國人 실종자 문제로 그 숫자는 1천 9백명으로 美國側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이 실종자문제는 美國의 국내정치적측면에서도 중요시되고 있지만 交戰당사국이었던 越盟과 맺은 파리休戰協定の 履行과도 직접 관련이 있다.

「越南에 있어서 전쟁종식과 平和回復에 관한 協定」 제 8조 B頁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明示돼있다.

「당사자는 전투중 행방불명된 당사자의 군사요원 및 외국인 非戰鬥員에 관한 정보입수, 死者에 대해 그 유체발굴 및 본국송환을 쉽게 하기 위해 묘지의 소재지 결정 및 관리 그리고 전투중 행방불명된 것으로 지금까지 여겨지는 사람에 관한 정보입수를 위해 필요한 그밖의 措施를 취하는데 관해서 서로 협조한다」(註6)

그러나 美國의 경우는 對共產越盟 接近의 動機가 어디에 있었건간에 對外政策的 접근 필요성은 공산월남과 접촉을 거듭할수록 커간 것으로 보인다.

越南공화국의 崩壞와 함께 커진 共產越南의 힘은 南北이 통일되면서 4천 8백 70萬인구를 안은 국가로 성장하고 더구나 東南亞에서 潜在的으로 가장 큰 군사력을 갖게 됐다. (正規軍 61만 5천, 국경경비대 5만, 연안경비 공안 민병 약 1백 50만) 註7)

名實共히 東南亞의 강대한 군사력으로 자라갈 전망이 보인 越南은 인근 東南亞의 體制를 달리하는 諸國에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 이같은 힘을 배경으로 아세안諸國이 共產越南에 接近하는 실리를 共產越南은 얻어냈다.

이같은 東南亞의 힘의 均衡의 변화에 対応키위한 美國의 實利的인 계산은 양국간의 접촉을 촉진한 중요한 要因으로 分析된다.

양국의 초기단계의 접촉에서 국교를 전제로한 교섭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共產越南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는 美國의 국내정치 의 환경이 오히려 급속한 接近을 저해해온 징후가 있다.

그간의 과정을 통해 보면 양측이 협상에서 내놓고 있는 현안문제는 변함이 없다.

美國側이 바라는 해결해야 할 문제는 越南戰에서 행방불명이 된 1천 9백명의 美軍兵士에 관한 정보제공과 유골반환이다.

한편 共產越南이 美國과 접촉하면서 바라는 것은 경제재건을 위해 47억 5천만 달러(그중 너스니 약속했다는 액수는 32억 5천만 달러)를 美國으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共產越南이 이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근거로 「美合衆國은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전후 베트남民主共和國의 復興事業과 인도차이나 전역에 걸쳐 이바지 할것이다」 註8) 라는 파리平和協定條文과 「어떠한 政治的조건 없이」 전후복구를 위해 원조하겠다고 내용을

답은 73년 2월에 닉슨前大統領이 越南首相에게 보낸 비밀서한을 내세우고 있다.

美軍실종자와 對統一越南복구지원이란 美·越측의 분명한 문제제기를 쌍방이 이해하면서 접촉을 계속했고 적어도 美國의 對中共接近에서 문제시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인 台灣문제같은 본질문제는 안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진전속도는 늦어져 왔다.

워터게이트事件으로 닉슨大統領이 불러나고 선거도 치루지 않고 부통령으로 되었다가 닉슨下野와 함께 대통령직을 계승했던 포드에게는 對越南문제처리를 위한 열의도 또 이를 해결키 위한 議회의 지지 세력도 갖고 있지 못했다.

76년 9월 6일 越南側은 파리의大使館을 통해서 행방불명된 美軍 12명의 명부를 美國側에 수교했다.

이것은 美國側에서 얻기를 바라는 실종자전체수에 비해서는 극히 사소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계속 美國과 협상하기 바라는 성의표시였다. 이에 대해 키신저국무장관(당시)은 「12명이란 숫자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일축했다. (76년 9월 11일)

75년의 남북越南의 유엔加入을 安保理에서 거부한 美國은 76년의 安保理에서도 거부했다.

美·越接近의 징돈상태타개를 위한 주요한 조치는 카터行政府가 들어선 후에야 취해졌다.

카터大統領은 77년 3월 24일 취임후 4번째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거의 協商結果와 越南側이 성의있게 대처하고 있고 또 越南側이 美軍행방불명자문제를 도우려하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나는 越南의 유엔加入과 그리고 그들과의 판지정 상화에 능동적으로
처치할 것이다」註9)

카터行政府의 이같은 對越南政策변화는 5월 3일 파리에서 열렸던
회담에서 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統一越南側은 20명의 美軍실종자명단을 추가로 제출했다. 반면
美國은 對越南경제봉쇄를 완화하는 언질을 주었다. 또 美國은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거부해왔던 越南의 유엔가입에 대한 지금까지
의 입장을 뒤엎고 7월 20일 安保理에서 越南의 유엔加入에 거
부권을 행사치 않으므로서 전진적인 태도를 취했다. 美國과 社會
主義共和國의 접촉은 修交形成단계에 들어섰다.

美國과 統一越南과의 國交正常화를 위한 패턴은 美國측의 對外的
인 戰略上의 문제가 국내정치문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美國이 표면상 協商의 주의제로 내놓고 있는 美軍실종자는 美側
추계가 1천9백명인데도 불구하고 越南측에서 보인 성의표시의 숫
자는 일차 12명 2次 20명에 한정됐고 77년7월현재 22구의 유해
가 美本土에 송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을 기점으로 협상이 급진전한것은 美國의
東南亞戰略上 越南을 敵으로 들릴수 없다는 카터行政府의 정책결정
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는 가능성의 문제이지만 경제
적인 측면에서 베트남海城石油開發에 美國이 참여할수 있는 길을
터보자는 욕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越南側은 협상과정에서 하
나의 미끼로 이것을 던진일이 있다.

반면 越南側은 전후복구를 위한 資本導入이란 對內的인 문제와

소련의 영향력으로 부터 獨立하려는 外交的인 측면이 布石을 동시에 노린 것으로 생각된다.

(3) 美·쿠바의 接近

美國과 쿠바의 接近이 급진적인 진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美國의 對越南 접근이 급진적인 진전을 보인 것과 거의 시기를 같이하고 있다.

이 같은 現象은 카터 行政府의 對敵性 國 접근 정책이 전 行政府보다 다소 적극적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카터 大統領은 77년 2월 16일 쿠바, 베트남 및 앙골라와의 국교 정상화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未修交 14개국과의 修交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中略) ... 카터 大統領은 이날 美農務省 순시에서 미국과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는 세계에 모두 14개국이었는데 우리는 이들 각국과의 관계개선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註1)}

3월 4일에는 사이러스 밴스 美國務長官이 기자회견에서 美國은 쿠바를 비롯해서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 대해 여행금지나 비자 발급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註2)}

또 5일에는 카터 大統領이 白堊館 집무실에서 가진 CBS 放送中繼 「레디오 對談소」에서 그의 행정부는 조속한 시일안에 쿠바와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註3)}

美國과 쿠바의 接觸과 접근은 시기적으로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美國과 쿠바가 對決政策을 포기하고 접근하기 시작한 前 美 行政府 때와 둘째는 카터 行政府 이후의 시기이다.

이 두시기를 통해서 美國의 對쿠바政策의 基本的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美·쿠바의 접근상 對內外的인 환경과 추진력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前美行政府들과 쿠바

우선 前行政府의 對쿠바接近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양국간의 특수한 과거의 관계를 잠깐 훑고 넘어가겠다.

쿠바는 地政學的으로 中共이나 越南과는 달리 美國本土와 마주보는 至近위치에 놓여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보다 오랜 시일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美國과 쿠바의 관계는 1898년 4월 쿠바의 스페인 植民主義者들에게 美國이 선전포고를 한 데서 비롯된다. 美國은 對스페인 戰爭에 승리하자 쿠바의 獨立을 승인했으나 新憲法에 내정 간섭권과 군사기지 확보를 위한 수정조항을 挿入하고 이어 1903년의 通商조약에 따라 정치·경제적으로 쿠바를 지배했다.

33년~58년의 바티스타 政權은 美國의 이익에 奉仕한 獨裁政權으로 革命을 불러왔다.

카스트로 政權은 美·쿠바간의 이 같은 歷史的인 背景을 안고 革命的인 方法으로 탈권한 정권으로 바티스타 政權이 쓰러지자(59년 1월 1일) 3軍총사령관 자리에서 首相에 오른(2월) 카스트로는 對美의 존탈피政策을 들고 나왔다.

美國은 카스트로 政權이 성립되자마자 신정권을 승인했으나 急進的인 새정권은 토지개혁공포(6월) 광업, 석유법공포(10월) 등을 통해 대지주와 美國기업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60년 10월에는 民間

기업 3백 82 개사를 국유화하여 美國企業의 농지와 광산을 접수하면서 建政권의 親美外交에서 급선회하여 對蘇接近政策을 추진해 나갔다.

60년 7월 아이젠하워 美國大統領은 이같은 쿠바의 急旋廻에 対応하여 쿠바産 사탕수수의 수입을 규제했다. 이것은 美國對쿠바 경제봉쇄의 첫조치로서 쿠바는 이에 맞서 美市民의 모든 재산(약 10억달러로 추정)을 접수했고 61년 1월에는 美國·쿠바의 國交가 단절됐다.

쿠바가 십수년에 걸친 敵對關係를 청산하고 美國과의 關係개선을 시작하게 되는 징조를 보인 것은 70년대에 들어선 이후로서 政府間 레벨의 和解의 첫 징후를 보인 것은 73년 2월 美·쿠바의 하이젠크 防止協定이다.

그러나 쿠바에는 이같은 協定체결이전에 이미 美·쿠바간의 敵對關係해소를 위한 政策으로 전환할 내부변화가 있었다.

우선 쿠바의 경제적인 측면을 들수 있다. 카스트로政權은 쿠바 輸出額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사탕재배에 역점을 두고 1천만 t 증산을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70년에 수립했다.

그러나 이해의 사탕생산은 8백 50만 t에 그친데다가 무리한 傾斜生産方式이 쿠바경제에 안겨준 주름살은 심각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72년 7월 쿠바의 COMECON 加盟으로 이끌어가 정치적 인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소련團의 충실한 一員으로 예속되게 만들었다. 쿠바경제의 심각성은 그밖에도 體制를 달리하는 라틴아메리카國家와의 접근에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70년 11월 칠레와 부교(73년 9월 아옌데政權 붕괴로 다시 斷交)로 시작된 쿠바의 체계를 달리 하는 나라에 대한 부교의 결과 쿠바는 74년 3월 아르헨티나에서부터 12億달러의 借款을 얻어냈다.

칠레와의 70년 修交를 기점으로 카스트로는 이듬해 칠레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쿠아도르 및 페루의 대통령과 만났다. 약 10년만에 카스트로의 南美 첫 방문 결과로 페루(72년 7월), 가이아나, 자마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바르바도스(10월)와 국교가 맺어졌으며 아르헨티나(73년 5월), 파나마(74년 8월), 바하마(11월), 베네수엘라(12월), 콜롬비아(3월)로 수년간에 걸친 復交러시가 이루어졌다.

「카리브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목적으로한 쿠바의 노력은 하바나政權이 그것을 인정하건 않건간에 쿠바의 對美관계상의 자격과 관련이 있다. 정치적추방과 경제적抵忤의 워싱턴政策이 계속되는한 쿠바는 중남미지역에서 얻고저하는 文化 通商 및 외교접촉의 증진에서 제한된 접수밖에 얻을수 없다」註4)

이렇게 볼때 쿠바가 中南美國家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는 美國과 가까운 中南美國가와 관계를 개선 이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美國과 接近하려는 뜻이 담겼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수년에 걸친 美國의 對쿠바經濟봉쇄는 쿠바의 경제가 自立할 수 있는 길을 막아왔고 따라서 對美관계개선의 길을 쿠바가 택하게 만든 중요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美國내에서도 쿠바에 대한 和解기운이 美·쿠바하이제크防止 協定締結前後에서 세차게 일어났다. 美·中共接近등 긴장완화의 潮流

를 타고 議會와 輿論은 73년초에 닉슨 行政府에 대해 쿠바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해 9월 國務長官에 취임한 키신저는 議會에서 취임시 가진 증언에서 「美國의 처쿠바 태도는 보다 융통성을 가질지 모른다」고 말했으며 닉슨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美·쿠바관계는 美蘇·美·中共관계와는 다르다」고 말하므로써 처쿠바政策의 재수립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쿠바關係는 75년까지 아무런 진전을 못 거두었다.

美·쿠바關係는 그 개선과정에서 보다 많이 外部의 영향을 받게 되는 특성을 보였다.

당시 美·쿠바관계의 정돈을 갖어온 外的要因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美洲大陸内の 力관계의 변화이다. 73년 9월 11일 칠레에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카스트로支持세력인 아엔데政權이 무너지고 親美政權이 선 것이다.

또 한가지는 中東문제해결을 둘러싼 美蘇관계의 긴장이 美·쿠바 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점이다. 「처쿠바政策완화는 소련에 이익을 줄것이라고 美國政策수립가들은 분명히 판단했기 때문에 처쿠바 태도를 경화시켰다」(註 5)

그러나 이것이 닉슨 行政府의 처쿠바완화政策의 기초를 흔들어 놓은 것은 아니었고 74년 3월 美國은 아르헨티나 駐在 美國 3개기업의 쿠바向 자동차수출을 허가하므로써 처쿠바禁輸를 완화하는 措置를 취했다 (그 결과 美國의 海外子会社를 통한 처쿠바輸出은 76년 美 財務省인가액이 3억 3천만달러가 됨). 같은해 9월에는 美上院의원

2명이 쿠바를 訪問했으며 75년 2월에는 유엔駐在쿠바의 교관의 여행범위를 확대, 이어 5월에는 매저번議員이 쿠바를 訪問했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 쿠바側의 의사를 타진한 美國은 쿠바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봉쇄 해제 宜함에 버금하는 조치를 취했다.

75년 7월 29일 산호세에서 열린 OAS(美洲機構) 外相회의는 「外交경제관계를 맺는 자유를 인정하는 決議」를 채택, 美國이 OAS를 주축으로 쿠바에 가하던 경제적壓力은 사실상 소멸된다는 것을 공포했다. 美國도 贊票를 던졌던 것이다.

前美行政府때 시작된 처쿠바解氷政策은 이미 틀을 잡아갔지만 美國이 워터게이트事件으로 닉슨이 물러나고 포드가 들어서고 선거를 의식한 포드行政府의 미온적인 接近태도로 이 과정은 카터行政府로 넘겨지게 된다. 또한가지 障礙요인은 75년말 앙골라에 대한 쿠바軍파병으로서 이 때문에 美·쿠바의 접근은 일단 정돈상태에 들어가지만 당시 美國行政府가 앙골라사태에 취한 태도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美·쿠바의 기존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것이었다.

카터行政府가 들어서면서 美·쿠바의 접촉은 政府間접촉의 본체도에 올라섰다. 77년 2월 10일 「조나탄 빙햄(民)하원 의원은 16년 전 외교관계를 단절한 이래 美·쿠바가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를 5일간의 쿠바訪問을 위해 카터行政府의 特使」로 아바나에 도착했다. 註6)

카터의 特使 조나탄議員의 쿠바訪問은 약 1주일(2월 16일), 카터大統領이 「쿠바, 베트남 및 앙골라와의 국교정상화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未修交國과의 수교도 검토중」 註7)이라는 발표로 이어

졌고 이처럼 급진전한 美·쿠바관계는 美國의 2백해리 경계수역선 포를 계기로 잡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다.

3월 24일 펠레그린 토레스 쿠바副外相을 포함하여 8명의 쿠바 대표단과 테렌스 A 토드만美國務省美洲담당次官補가 뉴욕에서 만나 어업권 및 해상경계선에 관한 회담을 했고 이어 토드만次官補는 하바나로 가서 美國의 2百해리漁業전관수역시행에 따른 政府間協定에 조인했다. 이것은 61년 단교이래 政府를 대표한 고위레벨의 첫접촉이었다.

카터行政府의 처쿠바 화해는 전정권때 보다 쉬운 여건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議會측에서도 처쿠바和解에 상당한 열의를 기우렸다. 「美上院外交委員는 美·쿠바관계 정상화노력의 일환으로 쿠바에 대한 의약품 및 농산물을 수출키로 가결했다」註8)

修交를 전제로 한 美쿠바의 政府間교섭이 케도에 오른 이후의 양국의 움직임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밴스美國務長官의 쿠바등 여행금지국에 대한 비자발급완화검토 발표 註9)

△ 3월 18일 美國의 처쿠바渡航制限令은 기한만료로 자동 폐기

△ 4월 5일 美國농구단 쿠바訪問親善경기

△ 4월 18일 미네소타州産業界대표 50명 하바나訪問(이 방문사절단은 쿠바禁輸이래 가장 큰 규모의 통상사절단이다.)

△ 5월 31일 美대통령부인 로즐린여사를 수행 南美방문중인 테렌스 토드만秘書, 美國은 외교판교환을 계의 했다고 발표 註10)

5월 30일 뉴욕에서 양국외교판교환각서를 교환한 美·쿠바양국은

교환협정에 따라 상호常駐의교대표부를 교환키로 했다고 쿠바 外務省이 3일 발표했다. 쿠바의무성은 3일 성명을 발표하고 美國영사과가 하바나駐在 스위스대사관에 설치되며 또 쿠바 영사과가 워싱턴駐在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에 설치, 양국간의 외교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註11)

美國과 쿠바의 接近에서 나타난 특수성은 美國이 越南이나 中共과의 접근때와는 달리 소련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게 작용한 점을 볼 수 있다.

카스트로政權 탄생이래 蘇聯과 밀착되었던 쿠바는 76년말 현재까지 「약 80 億달러의 경제원조를 받아왔다」 註12)

政治·경제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친 소련의 찬성하에 쿠바가 美國과 접근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소련의 정부기관지 이즈베스차도 最近의 美·쿠바和解를 지지하고 있다.

美·쿠바관계 개선이 쿠바와 美國만의 의향이라기보다 쿠바에 깊은 이해관계가 있으며 또 큰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소련의 찬성없이 는 보더 前進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美國의 美·쿠바和解가 美國과 소련과의 관계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현재 소련이 美國과 쿠바의 해방을 찬성하는 意圖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분석된다.

「소련의 意圖는 사망값 暴落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쿠바經濟에 대한 원조의 부담을 美國의 손을 빌어 조금이나마 경감하려는 정도의 것으로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 소련의 거점을 포기하려는

것은 아니다」(註13)

따라서 앞으로 쿠바가 어느 程度까지 美國과 접근할 수 있는나의
문제는 美·소간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第 2 章 [註]

[美 · 中共]

- 註 ① 71년 4월 8일 워싱턴路透로이더通信
- 註 ② 바르샤바의 美 · 中共大使級會談은 70년 봄 美 · 越南軍에 의한 캄보디아侵攻에 항의 中共측에서 중단시킴.
- 註 ③ 닉슨독트린은 70년 2월 18일 닉슨의 對議會外交敎書에서 「평화에의 新戰略」을 밝힌것. 그중에서 前年 7월의 아시아政策에 관한 팜독트린을 전세계에 확대 적용하는 닉슨독트린을 폈다.
- 註 ④ 71년 7월 29일 밝혀진 美政府고관의 美中共接近背景설명
- 註 ⑤ 外交 3原則은 첫째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하에 社會主義진영 제국간의 우호상호원조 협력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둘째 平和五原則을 기초로 해서 社會制度가 다른 국가와의 平和共存을 爭取하고 帝國主義의 侵略政策과 戰爭政策에 반대한다. 셋째, 모든 被壓迫民族의 혁명투쟁을 지원한다.
- 註 ⑥ 「展開하는 革命外交」 71년 12월 10일 日本朝日新聞社발행 p.103.

[美 · 越南]

- 註 ① 75년 7월 7일 하노이路透 AFP通信
- 註 ② 77년 5월 2일 파리路透 로이더通信
- 註 ③ 76년 3월 29일 파리路透 AFP通信
- 註 ④ Truong Chinh - "Achieving National Unity with"

respect to the state" Hoc tap. November 1975.
p.20 ~ 22.

- 註 ⑤ Problems of Communism Mar-Apr,77. p.49.
註 ⑥ 메콩강은 証言한다 (汎曙出版社. 73.10.5.발행) p.509.
註 ⑦ 日本 共同通信발행 "世界年鑑" 77년도 p.211.
註 ⑧ 越南에 있어서 戦争종식과 平和회복에 관한 協定 제 8장.
美合衆国과 베트남民主共和国과의 關係를 규정한 21조.
註 ⑨ 美大使館발행 EPE-54 (4/28/77); p.4.

[美·쿠바]

- 註 ① 워싱턴 2월 18일 發 UPI通信
註 ② 朝鮮日報 3월 5일자 특파원 發 기사
註 ③ 77년 3월 7일 워싱턴 發 AP通信
註 ④ Current History 74년 1월호, p.13.
註 ⑤ "Cuba Fifteen Years Later" George Volsky p.14.
註 ⑥ 하바나 77년 2월 11일 發 AFP通信
註 ⑦ 워싱턴 77년 2월 16일 發 UPI通信
註 ⑧ 워싱턴 77년 5월 10일 發 UPI通信
註 ⑨ 77년 3월 4일 워싱턴에서의 記者會見
註 ⑩ 킹스턴 77년 5월 31일 發 A P通信
註 ⑪ 하바나 77년 6월 3일 發 AFP通信
註 ⑫ 日本共同通信社 世界年鑑 77年版 p.474.
註 ⑬ 日 朝日新聞 77년 4월 12일자 夕刊

第3章 美·北韓 접촉의 배경

핵무기가 안전의 성격을 크게 바꾸어 놓은 오늘날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은 정치적 안전의 균형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危險視하게 됐고 敵對國과의 사이에서까지 상호의존관계가 발전하고 있다. 美國과 北韓관계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韓國과는 血盟의 友邦이며 자유세계의 警察力을 맡아온 美國의 세계정책은 카터행정부 등장 이래 불을 불로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불로 끄는 美國 자신의 원칙과 價值觀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으며, 中·蘇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줄타기外交를 벌여온 北韓은 美·蘇, 美·中共관계의 변화속에서 「美帝」를 규탄하는 것만으로 일관할 수 없게 되었다. 北韓도 변할 수 밖에 없는 世界大勢이다.

越南戰이 막을 내림으로써 이데올로기의 對立은 국제분쟁의 이슈에서 더욱 지위를 잃었는데다가 越南戰에 관한한 아무런 책임 없는 카터행 정부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 時代를 劃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추구해가고 있다. 越南失敗의 좌절감에 빠져있는 美國民들에게 「힘의 정치」대신 道德政治를 들고나온 카터대통령은 「冷戰의 종언」을 선언했고 특히 韓半島問題에 관해서는 선거전 때의 공약인 「駐韓美地上軍撤収」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美國과 越盟간의 파리越南平和協定을 對南赤化統一의 모델로 삼은 北韓은 카터대통령의 對敵性國 관계개선宣稱을 對美接近攻勢로 맞아들이고 있다.

美·北韓간의 접촉은 美國측에서는 전반적인 外交政策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北韓측에서는 모든 外交政策을 여기에 歸一시켜

불직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1) 美国의 새 세계政策

카터행정부는 「支離滅裂」된 世界를 再構成하는데 있어서 종래의 世界警察權 대신에 強力한 道德的 외교 주도권을 사용하고 있다. 카터행정부의 世界政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註1) 外交構想圖에 그려진 기본구조는 ① 蘇聯은 여전히 美国의 主相對者이다. ② 아랍石油은 버릴 수 없다. ③ 中共과의 和解는 積極化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이 具體化되고 있다.

① 人權은 最우선순위를 갖는다. 카터행정부는 人權政策을 추진함으로써 蘇聯指導層을 守勢에 몰아 넣는 외교적 이익을 얻고 있다. 또 전에는 결여되었던 開發途上國들의 美国支持를 획득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美国民과 議會가 대체로 카터支持로 모여들게 하고 있다.

② 蘇聯과 전략무기제한 회담 (SALT)을 협상하고 데탕트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美国은 과거 어느 행정부때 보다도 더 강력한 자세를 취한다.

③ 아랍-이스라엘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努力은 그것이 비록 美-이스라엘關係를 다소 긴장시킬지라도 추진한다.

④ 美国은 白人統治의 南아프리카에서 民族解放運動을 지지한다.

⑤ 對外武器 판매제한은 美同盟國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를 갖는다.

⑥ 제3세계와 産業國家群을 가르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深淵에 架橋를 놓기 위한 努力을 증대한다.

① 中共과의 全面外交關係樹立을 위한 努力은 재개될 것이지만 自由中國의 安全은 여전히 중대한 관심사이다.

② 駐韓美地上軍撤収는 計劃대로 집행한다.

③ 쿠바와 베트남은 美國에 의해 더이상 부랑아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두 공산국가가 美國과 전면외교關係를 樹立하기까지는 먼길을 걸어야 한다.

以上을 綜合하면 이제 美國은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고, 對外政策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價值觀에서는 不變하는 品位를, 역사적 비전에 있어서는 樂觀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카터행정부가 새로운 세계의 형성을 전망하며 공산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해도 아시아 문제에 있어서는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낙관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美國의 知的, 道德的 빈곤의 가장 좋은 본보기」인 越南失敗를 비롯, 中共-自由中國, 南北韓問題등 冷戰時代의 잔재가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대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2) 美國의 아시아政策

越南에 대한 美國의 비극적 개입은 美國의 아시아政策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撤収만이 가장 좋은 方法은 결코 아니다. 마침내 평화로워진 아시아, 그러나 不安이 없지도 않은 아시아에서의 美國의 역할을 사이러스 밴스 美國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註2)

① 美國은 아시아太平洋國家이며, 또 그렇게 남을 것이다.

② 美國은 아시아와 太平洋의 平和와 安정에 기여하는 주요한 역할을 계속한다.

③ 美國은 이 지역 국가들과의 互惠와 상호존중에 바탕을 둔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추궁한다.

④ 美國은 美國과 이 지역의 경제의 漸增하는 相互依存性을 인식하여 太平洋에 걸친 무역과 투자의 상호확장을 추구한다.

⑤ 美國은 아시아국민들의 人間條件을 改善하기 위해 美國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美國이 아시아·太平洋地域 國民들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리라는 데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 가운데서도 日本과 강력한 유대를 유지하는 것은 카터행정부의 아시아정책목표리스트에 있어서 최우선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美·中共關係 改善이다. 사이러스 밴스 美國무장관은 이 문제를 더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977年8月末 中共을 방문했다. 美國과 공식적인 것으로 남을 것인가 非公式적으로 전환할 것인가 또 직접적인 것으로 계속될 것인가 간접적으로 바뀔 것인가는 간단한 해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자유중국의 안전이 문제의 초점으로 오래 남을 것 같다.

세계가 韓半島問題이다. 한국에 대한 美國의 公約은 美國 관리들에 의해 「정말 매우 매우 확고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4~5년에 걸쳐 駐韓美地上軍을 撤収한다는 카터의 計劃은 추진될 것이다. 이것이 北韓에 의한 무모한 危險을 초래함이 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修正과 補完이 따를 것은 물론이지만 撤軍原則에 變化는 기대되지 않는다. 北韓은 그들이 끊임없

이 주장해오던 駐韓美軍의 撤収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撤軍期間에는 美國의 신경을 자극시키는 일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對美和解제스추어가 美國에 의해 和解誠意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의 과제가 共產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이다. 美國은 이미 共產베트남의 유엔加入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으며 「베트남社會主義共和國」政府를 승인할 용의를 보였다. 美·베트남관계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전망될만큼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겠다.

美國의 對敵性國政策

카터행정부는 共產敵性國과의 관계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워렌 크리스토퍼 美國무차관은 美國이 中共, 베트남, 쿠바, 이라크, 蒙古를 포함하는 10여개 국가와 정상적인 관계를 樹立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註3)}

카터행정부는 과거의 쓴맛을 뒤로 돌리고 장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베트남과 쿠바는 美國과 관계를 개선하기 비교적 쉽다. 이에 비해 中共과 北韓은 각각 自由中國과 韓國이라는 「큰장애물」이 놓여 있어 對美접근이 더 어렵다. 美國은 外部世界로부터 스스로를 봉쇄시키고 있는 캄보디아와 알바니아 같은 나라들은 우선 제쳐 놓더라도 美國과 접촉을 시도하는 종래의 共產敵性國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 가운데 美國이 관계개선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나라는 中共이다. 美國은 對蘇競爭과 아시아 安定을 위해 中共을 종래의

敵對者로부터 協調者로 받아들이고 있다. 『美國과 日本과의 유대는 美國의 아시아정책의 礎石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美國은 中共과 새 관계를 구축하는 훌륭한 기회를 내다본다. 美國은 中共과의 우호적 관계가 美國外交政策의 한 中樞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註4)』

日本과 中共이 外交關係를 樹立하고 있는 이상 日本과의 강력한 유대를 확신하고 있는 美國은 아시아의 안정을 美·日·中共의 協力에 의해 유지시키려는 전략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서 경제적으로는 蘇聯에 더 가까우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中共에 더 가까운 北韓에 대해서도 美國은 영구히 交戰상대로만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관계개선의 상대자로 받아들여 和解體制의 일원으로 물고 가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3) 美國의 對北韓접촉 가능성

특히 美國의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北韓의 접촉이 더 적극적일 가능성을 띠고 있다.

그 요인은 첫째, 駐韓美地上軍撤收計劃과 관련되어 있다. 카터대통령은 선거공약에 따라 駐韓美地上軍과 核武器를 4~5년에 걸쳐 撤收시킬 計劃에는 변함이 없다. 駐韓美軍과 核武器는 美國의 東北아시아 安定政策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美國이 아시아와 太平洋의 平和와 安定에 기여하는 重要한 역할을 계속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상 美國은 駐韓美地上軍 및 核武器를 撤收시키는 대신 다른 安定裝置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東北아시아의 安定은 韓國休戰線의 安定에 左右되는 것이다.

韓國休戰線의 안정을 위해서는 北韓의 南侵企圖가 不可能한 정도로 韓國에 대한 美國의 軍사원조를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方法이겠으나 이와 함께 美國의 對北韓 긴장완화도 고려될 수 있다. 美國이 駐韓美地上軍 및 核武器를 철수시킴에 있어서 아무런 補完조치를 先行시키지 않을 수는 없다. 美國은 韓國軍 增強 지원과 함께 對北韓協商을 並行시키려 들 可能性이 충분하다.

둘째, 카터행정부는 헨리 키신저前美國무장관이 제의한 4 当事者會 談案을 이어 받고 있는데 이 案을 추진한다면 對北韓접촉이 따르게 마련이다.

키신저가 자신이 제시한 이 案을 적극 추진하지 않는 것은 그의 外交哲學이 強大國을 통한 힘의 政治를 신봉하는 것이었으므로 北韓과 같은 弱小政權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때문인 것 같다. 또 제 2의 越南失敗가 될 것 이라는 輿論과 韓國의 반대 및 中·蘇의 냉담한 태도등도 그 이유의 일부였던 것으로 分析된다.

그러나 카터는 불력간의 세력균형이나 힘의 外交哲學보다는 道德과 人權을 바탕으로 한 個別 接近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카터의 道德政治와 人權外交는 실제로 美國의 主相對國인 蘇聯과, 지금까지 美國의 影響力을 받아 온 盟邦에만 강력히 적용되고 있을뿐, 美國이 새로 접촉을 시도하는 다른 공산국가 특히 敵性國들과 제 3 세계 그룹에 대해서는 허약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카터행정부는 北韓에 대해서도 道德과 人權을 잠시 뒤로 미뤄놓고 개별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카터행정부의 구성원들은 前任포드 행정부에 비해 진보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 對北韓접근에의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사이

러스 밴스 國務長官은 분쟁해결의 名手로서 北韓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對決의 姿勢보다는 協商을 먼저 試圖할 것이며 이것이 전반적인 美·北韓접촉의 基가 될 수 있다.

그러나 美國의 對北韓접촉은 韓國과의 事前協議없이, 또 韓國이 參加하지 않은채 試圖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어진다. 카터행정부는 이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분명히 했다. 道德重視의 카터外交이고 보면 믿어도 좋을 것 같다. 다만 事前協議와 韓國參加가 어떤 방식, 어떤 형태인가는 문제로 남는다.

현실적으로 美國이 韓國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 北韓과 접촉할 價值를 찾았다고 볼 수는 절대로 없다. 이점 美國의 對北韓접촉은 이스라엘과의 긴장을 각오하는 對아랍外交, 自由中國의 意思에 反하는 對中共和解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겠다.

(4) 北韓 外交政策의 변천

北韓外交政策의 基本路線은 中·蘇분쟁에 말려들지 않고 社會主義諸國 및 제3세계諸國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이른바 美帝와 大韓民國의 국제적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北韓은 이를 위하여 中·蘇를 비롯한 共產諸國과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 관계를 강화하고 기타 世界 여러 나라들과는 實利追求라는 차원에서 貿易關係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北韓의 外交를 沿革的으로 살펴보면 50年代까지는 中立國과의 관계개선을 60年代에 들어와서는 北韓과 좋은 關係를 맺으려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70年代에 들어와서는 美國에까지 접근을 시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50年代 北韓의 對中立国外交는 반동會議를 무대로 아시아·아프리카지역 新生國들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반동會議는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공고한 平和를 지향하는 수억만 아시아·아프리카인들의 일치한 합의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인 北韓은 『相異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레닌의 原則을 견지하며 자유권의 상호존중과 평등권에 입각하여 世界 모든 平和愛護國家들과의 政治的 및 實務的 연계를 맺기 위하여 努力』^{註5)}하는 것에 당시 外交政策의 主眼點을 두었다.

이때까지 北韓의 外交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들의 공통한 이해관계를 강조하며 反帝·反美투쟁을 위해 연대성을 강화하자는 強硬一辺到였다.

그러나 그후 日本이 국제무대에 浮上함에 따라 北韓은 「美帝」와 함께 「軍國 日本의 復活」을 함께 규탄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中·蘇분쟁의 深化로 비롯된 共產圈內的 분열과 團結解弛속에서 外交政策의 수정을 강요받기 시작했다.

金日成은 1961年9月 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이 진영국가들간의 친선과 協力關係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으나 그 이듬해인 1962年10월 최고인민회의 3기 1차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民主主義的 權利와 社會主義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 나라의 노동계급과 근로인민의 革命投爭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하여 서방국가들에게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人民外交戰術을 공공연히 들고 나왔다.

60年代 北韓의 外交政策은 世界가 兩極化에서 多極化로 再編이 完연함에 따라 「美帝」를 최대한 고립시키기 위해 北韓과 직접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는 西方國家들과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北韓은 對西方接近에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공동건설을 동원, 『美帝들과 프랑스나 日本 그리고 그밖의 帝國主義者들 사이의 葛藤과 矛盾도 이용해야 하며 美帝를 최대한 고립시켜야 한다』 註6)고 했다.

사회제도가 상이한 國家들과도 平和關係를 맺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을 北韓黨 및 政府의 重要한 對外政策으로 삼는 것은 더 많은 나라들과 平等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對外貿易을 확대 발전시키려는 實利追求를 포함하고 있었다.

北韓은 1967年12月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서 『주체사상을 확립하여 국가활동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革命精神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中·蘇분쟁이 절정에 달했던 상황에서 중립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北方3角關係에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까지만해도 北韓의 外交政策은 對西方關係改善을 추구하면서도 反帝反美 투쟁노선을 고수한 것이었다. 金日成은 1965年10月 노동당 창건 20주년 기념보고에서 『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平和共存政策은 社會主義 나라들의 對外政策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여기에 反帝國主義 투쟁을 녹여버리거나 이것으로 하여 反帝國主義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고 1966年10月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도 『국제문제들에서 원칙을 버리고 美帝와 타협하는 일은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反美투쟁노선을 조금도 완화하지 않았다.

金日成은 1965年4월 알리아르함 社會科學院 연설에서 『우리는

나라들 사이의 경제협조를 반대하거나 문을 닫아매고 社會主義를 건설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每個나라가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위에서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또 그렇게 하여야만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나라들 사이의 경제협조를 끊임없이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對西方經濟外交의 필요성을 연설하면서도 1967年12月 최고인민회의 4기1차회의에서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적 실무관계는 부차적 意義를 갖는다』고 규정하여 이것이 反美투쟁노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우려했다.

요컨대 60年代까지 北韓의 外交政策은 反帝統一戰線을 활용하면서 西方의 左傾 및 不滿勢力에 추파를 던지고 西方世界 國家간의 葛藤까지 이용하여 美帝를 최대한 고립시킴으로써 韓國에 대한 美國의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었다.

北韓의 外交對象이 점점 확대하여 美國과의 關係改善까지 생각한 것은 70年代에 들어와서이다.

(5) 北韓의 對美接近背景

北韓의 對美接近背景으로는 첫째, 越南終戰을 지적할 수 있다. 美國이 越南戰을 수행하는 동안 美國內 反戰派活動을 지켜본 北韓은 헨리 키신저 美國대통령 安保担当特別保佐官과 레 득 토越盟政治局員간의 비밀협상에서 韓國을 소의시키는 美·北韓간의 협상 가능성을 생각해낸 것 같다. 키신저의 越南終戰計劃은 美國이 지루한 戰爭으로부터 손떼는 것만을 목표로 했던 것이므로 구옌·반·티우 大統領의 사이공政府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키신저는 사이공 정부와의 긴밀협의 보다는 하노이정부와의 비밀협상에 더 주력하고

있었다. 終戰計劃은 결국 南北越의 赤化統一로 끝나고 말았는데 北韓 金日成은 韓半島赤化統一도 越南의 모델에 따라 가능하다고 본 것 같다.

金日成은 1972年5월 뉴욕타임즈紙와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美國政府의 反動政策은 반대하지만 美國人民들은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美國에 우리의 좋은 親友들이 많아질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美國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美國 政府의 태도에 달려 있으므로 美國政府가 內政불간섭, 駐韓美軍撤収, 언커크解體, 日本軍國主義再生策勵중지 및 그들을 南朝鮮에 끌어들이는 행동을 중지하는 등의 정책을 改變한다면 美國에 대한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종래의 強硬一辺到를 완화했다. 또 그해 6월 21일 워싱턴 포스트紙와의 기자회견에서 『우리 朝鮮人民들은 美國人民과 美帝國主義者들과는 구별한다. 朝鮮人民들은 美國人民들과는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관계개선을 희망한다』고 전제 『駐韓美軍이 撤収한다면 美國과 通商, 經濟關係를 樹立하는데 환영한다』고 거듭 對美態度완화를 밝혔다.

金日成은 美國과의 협상이 어떠한 것이든간에 越南에서 본 것처럼 韓·美간의 異見을 露呈시켜 韓國政府의 立場을 弱化시키고 상대적으로 北韓의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시간을 끌면 선거, 여론등의 압력을 받는 美國政府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도 계산에 넣은 것 같다.

둘째, 美·中共 和解는 北韓의 對美接近을 촉진하는 중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美·中共 和解에는 韓半島問題가 필연적으로 附隨된

다. 南北韓 쌍방은 韓半島問題를 強大國의 恫정에만 맡겨둘 수 없었기에 한때나마 南北對話가 可能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은 한편으로는 中共에 대해 對美접촉을 의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韓半島에 대한 中共의 공식적인 입장은 美·北韓 平和會談 開催이다. 「韓半島問題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는 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 美國과 中共간에는 韓半島問題가 언제나 拳論되어 온 것으로 추측되며 사이러스 밴스 美國務長官은 1977年1월말 中共방문을 앞두고 韓國問題를 中共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韓은 中共의 韓半島問題에 대한 공식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孤立感에서라도 對美接近을 더욱 서둘러 줄 것이며 그렇지 않고 內面에서 中共의 압력을 받고 있다면 美·中共 和解와 이것의 發展形態인 東北아시아 安定의 일환으로 美國과의 접촉이 불가피하다.

세째, 南北對話의 中斷이 北韓의 對美접선전략에 이용되고 있다.

北韓은 南北對話가 궁극적으로 赤化統一을 위한 始發點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으나 南北對話 과정에서 北韓이 발견한 것은 안정된 평화속에서는 南韓赤化가 불가능하고 결국 남은 길은 韓國政府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策動뿐이라고 결론 내린 것 같다. 韓國政府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정부를 제외시키는 美國과의 협상임은 말할 것도 없다.

北韓이 南北對話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韓半島問題에 관한 意思소통의 길을 막아버림으로써 답답한 분위기를 만들어 美國으로 하여금 빨리 협상에 응해오도록 하는 전략도 내포한 것으로 분석

된다.

네째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카터 행정부의 駐韓美軍撤収計劃이 北韓의 주장을 일부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점이 北韓의 對美接近에 好機로 작용한다.

北韓은 美國에 대한 태도를 완화하기 시작할 때부터 美國의 韓半島에 대한 不干渉, 駐韓美軍撤収, 언커크解體등을 協商의 前提條件으로 제시했다. 언커크는 이미 解體되었고 駐韓美軍撤収는 地上軍에 국한된 것이지만 예정된 이상 北韓은 이를 美國측의 誠意로 받아들여 對美接近攻勢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것으로 보인다. 1977年7月14日 美軍헬리콥터 격추사건에서 北韓이 재빨리 美軍생존자와 사망자 유해를 돌려주는 조치도 對美接近攻勢의 일환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註 1 ; U. S. NEWS & WORLD REPORT, JULY 18 .1977 . 参照

註 2 ; 사이러스 밴스 美国務長官, 아시아学会연설, 1977.6.29

註 3 ; 워렌 크리스토퍼 美国務次官, 옥시멘탈大学연설, 1977.6.11.

註 4 ; 사이러스 밴스 美国務長官, 아시아学会연설, 1977.6.29 .

註 5 ; 조선로동당 제 3 차대회 보고

註 6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기 8차 전원회의 보고

第 4 章 美 · 北韓 접촉과정

美国과 北韓의 접촉과정은 대체로 美国国内에 越南戰 反对勢力이 확대되던 때 北韓이 人民外交戰術을 펴던 時期, 닉슨의 中共방문을 계기로 美国이 对北韓政策을 재조정하던 時期, 포드행정부때 美国이 北韓에 대해 硬化的 자세를 보이던 時期, 카터행정부에 와서 北韓이 对美접근공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벌이고 美国은 宥和的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시기 등 4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카터행정부 이전의 美 · 北韓접촉은 北韓의 짝사랑에 대해 美国이 때로는 好意로, 때로는 증오로 対応한 것이었으나, 카터행정부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쌍방에 의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必要가 있다.

(1) 北韓의 人民外交戰術

美国에 越南戰反对運動이 고조되던 60年代末부터 北韓은 美国国内의 좌익 및 反戰세력에 접근, 駐韓美軍철수를 위한 压力團體로 이용하려 했다.

종래 美国이라면 송두리채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몰아 붙였던 정책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北韓은 1969年 8月 19日 美国共産党代表執行委員長 피드먼을, 이듬해 8月 10日에는 同黨委員長 헨리 윈스턴을 平壤에 초청하여 美 · 北韓共産党間의 유대를 맺었다.

또 1971년 2월 「美国 · 朝鮮親善公報센터, (American-Korean Friendship & Information Center)를 設立한데 이어 「朝鮮人

민과의 연대성위원회」(The Committee for Solidarity with Korean People)를 조직했다.

그리고 美國의 인종분규를 이용하기 위해 1970年 11月 黑人 펜서당을 北韓이 평양으로 초청하여 美國黑人들의 人權鬭爭과 「남朝鮮人民들의 反帝鬭爭」에 있어서 공통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北韓은 美國의 지하단체인 흑표범黨(Black Panther)과 관계를 맺어 흑표범黨의 지도자인 엘드리즈 클리비를 여러차례 평양에 초청하고 그들의 機關紙 「흑표범」발간을 위해 巨額의 공작금을 증여한 것으로 알려 졌다.

北韓은 在美僑胞社會에도 組織을 형성, 뉴욕에는 조선민주주의 통일전선(The United Front for Korean Democracy) 본부를 두고 대표 高炳徹로 하여금 僑胞들에게 신문, 잡지, 전단을 배포케 하여 反韓感情을 고무시켰다.

워싱턴에는 韓國研究院院長 金용중을 통해 역시 같은 활동을 하게 했다. 金용중은 1969年 11月 12日 New Mobilization Committee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만일 美國이 「友邦」을 지키기 위해 軍事力을 계속 韓國에 주둔시킨다면 韓國은 곧 제2의 越南이 될 것이다. 越南만의 平和는 아시아에서의 美國의 出血을 증지시키지 못할 것이다.

거대한 惡意的 음모가 韓國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惡의 要因은 지구를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불씨에 부채질 하고 있다. 美國國民은 더 늦기 前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北韓은 60年代末 부터는 종래 사회주의 國家와 일부 中立國을 상대로 했던 매스미디어에 의한 宣傳方法을 美國에까지 확대했다. 1969年 10月 美國의 뉴욕타임즈紙에 金日成의 伝記廣告를 내었다. 그해 12月 28日字 워싱턴 포스트紙 日曜부록 퍼레이드에 의하면 金日成은 1969年 한해동안 뉴욕 타임즈를 비롯, 英國의 런던 타임즈, 西獨의 프랑크 푸르트 알게마이네 등 서방의 주요신문들에 자기선전廣告를 내기 위해 北傀治下 人民들이 피땀 흘려 번 外貨 약 5만달러를 낭비했다고 보도했다.

金日成의 자기선전廣告는 당시 세계의 耳目을 集中시키고 있던 胡志明이나 毛沢東처럼 民族的 심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노력에서 발상된 것이었다.

“사실상 北傀에는 胡나 毛에 맞먹는 개인승배를 완비한 그와 같은 지도자가 벌써부터 있었다. 그러나 北傀政權과 공산당의 괴수이며 이른바 「20세기의 영웅」이라는 金日成은 北傀以外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는 자들은 필연적인 다음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들은 金日成 伝記의 英文版을 내고 이 책을 런던 타임즈와 뉴욕 타임즈에 전면 廣告를 냈다.”(註1)

당시 美國은 越南戰 종결, 그 이후의 아시아 안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자로 胡志明이나 毛沢東을 꼽고 있었다.

北傀 金日成은 6·25동란 동안 格에 맞지 않게 新聞의 제목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休戰 以後는 忘却속에 묻혀가기만 했다.

67年 푸에블로号 납치, 69年 EOI21機 격추라는 두가지 큰

모험으로 北僞는 다시 뉴스면에 나타나기는 했으나 이것으로 뉴스면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못했다.

金日成은 越南戰後 새로 전개될 아시아에서 美國으로 부터 毛·胡 다음 가는 상대자로서의 지위라도 다져 놓고자 했던것 같다.

金日成은 美國内 左翼, 反戰, 反韓勢力들에게 접근을 시작, 장차 美國정부레벨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 있었다고 하겠다.

金日成의 이같은 試圖가 당시 美國政府에 의해 制裁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닉슨 독트린에 의한 美國의 아시아정책전환이 이미 中共 및 越盟과의 和解를 念頭에 두었고 부수적으로 장차 北韓과의 접촉도 이때부터 예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美國의 對北韓政策 再調整

1972年 2月 리처드 닉슨 美國大統領(당시)의 中共訪問을 계기로 美國의 對北韓政策은 재조정되기 시작했으며 北韓 또한 對美政策에 있어서 人民外交戰術에서 일보 전진, 정부레벨의 접촉을 노골적으로 시도했다.

美國의 韓半島政策은 역사적으로 東北아시아의 강대세력과의 力學關係에 따라 變化 조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보면 美·中共和解속에서 中共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北韓에 대한 美國의 政策도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美國은 北韓의 好戰性을 封鎖政策(Containment)으로 抑制하는 것을 지양, 北韓을 國際社會의 일원으로

유도해 내어 그 好戰性을 淨化시키는 체계로 물고 가터 했던 것이다.

닉슨이 중공방문을 끝내면서 周恩来 중공수상(당시)과 공동으로 발표한 上海聲明은 “韓半島의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의사 소통을 증시키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美國은 닉슨의 중공방문이 결정되자 北韓에 대해서도 화해분위기 조성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1971년 7月 美國은 中共을 방문했던 AP通信의 베네딕트 데이비드 記者의 平壤방문을 목인한 것을 비롯, 7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뉴욕 타임즈紙의 해리슨 솔즈버리 編輯부국장, 同紙의 존 리 東京支局長 워싱턴 포스트紙의 셀리그 해리슨 東京支局長, 그리고 하바드大學의 제롬 B 코헨교수의 北韓訪問을 許容했다.

1972년 3월 7일 윌리엄 로저스 美國務長官(당시)은 美國이 관계개선을 모색하려는 국가 가운데 北韓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저스는 年例적인 外交報告書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北韓이 美國과의 관계정상화를 바라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美國新聞의 보도에 관해 질문을 받고 “美國政府는 대체로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개선을 지지하며 이 가운데는 北韓도 包含될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로부터 8일이 지난 15일에는 찰즈 브레이 美國務省대변인(당시)이 北韓이 美國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근거들이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美國은 韓國政府와 充分히 협의하기 전에, 또 北韓의 真意를 把握하기 前에 肯定的인 조

리를 취하지 않겠다고 北韓의 對美協助에 대한 美國政府의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당시 윌리엄 폴브라이트 美上院 외교위원장은 1973年 4月 3日 日 上院에서 南北韓간의 긴장완화와 촉진을 위해서는 對韓軍事援助를 삭감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마이크 맨스필드 上院 民主党 원내 총무는 73年 3月 한 연설을 통해 아시아 大陸에 긴장완화를 조성키 위해서는 그곳에 주둔해 있는 駐韓美軍 4万名, 駐泰美軍 4万5千名, 駐臺美軍 8千名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폴브라이트와 맨스필드는 美議會内の 進歩派 기수들이었으며 그들의 이같은 발언은 韓半島 긴장완화를 위해 美國의 對韓支持度 약화와 對北韓接近을 한 方法으로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것이었으며 특히 그러한 맨스필드가 카터 행정부에서 駐日美大使가 되어 美國의 東北아시아정책 수립에 있어서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留意할 必要가 있다.

니슨의 共和黨 행정부는 議會진보파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對北韓공식接觸을 피했던 것은 사실이나 北韓에 대해 몇가지 宥和的 태도를 보인것도 부인할 수 없다.

美國은 北歐諸國의 北韓승인을 적극 반대하지 않았고 73年 北韓의 세계보건기구(WHO) 가입에도 미지근한 자세를 취했으며 유엔에 北韓이 常駐음서버단을 파견하겠다는 것도 받아 들었다.

이러는 동안 北韓과 美國實業人間에 알루미늄 공장과 조선소 건설을 위한 商談이 이루어지고 있다느니, 美國이 北韓에 비밀회담을

제외했다느니, 폴브라이트議員이 증공을 통해 美·北韓간의 창구물
열 가능성이 있다느니, 美議회가 北韓에 使節團을 파견할 것이라느
니 하는 등 근거 박약한 억측들이 구구하게 나돌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北韓当局의 對美接近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진지하게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金日成은 1972年 5月 平壤을 방문한 뉴욕타임즈紙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對美政策의 전환조건을 제시했으며, 그해 6月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전반적인 관계개선에 앞선 通商관
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72年 8月 北韓을 방문한 코헨교수는 北韓을 "美國에 대해
가능한 和解의 어떤 意思表示를 전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北韓의 外相 許諫은 1973年 봄 美議會에 대해 韓國을
제외시키는 美·北韓간의 협정을 제안했다. 이 사실은 그 이듬해
3月 비로소 공표되었다.

現 休戰協定을 대체하기 위한 美·北韓간의 쌍무평화협정이란 이
름의 이 제안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南北韓相互불가침, 무력충돌위험 제거.
- ② 南北韓 軍備競争중단, 外國武器 韓國 반입 중지
- ③ 駐韓外國軍 조속 철수, 유엔司 廢止
- ④ 韓半島 外國基地化 금지

北韓의 이같은 제의는 美議會內 진보파세력들의 支持를 기대한

것이었으나 닉슨행정부는 한국이 参与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도 北韓과 할수 없다고 일축하고 말았다.

닉슨행정부는 上海声明을 계기로 北韓에 대해 화해분위기 조성에 制動을 걸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인 對話誘導政策은 퍼지 않았다.

上海声明도 “韓半島의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하여 南北韓 당사자의 主導를 강조한 의미를 풍겼으며 “美国은 韓國과의 긴밀한 유대와 그에 대한 지지를 유지할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닉슨행정부는 金日成 집단의 好戰성과 變態的 異質性 때문에 北韓에 대한 和解나 接近을 좀더 時間을 두고 검토할 생각이었던것 같다. 또 韓國의 對北韓 불안감도 감안했음에 틀림없다.

닉슨은 그의 中共방문쇼크가 가라앉기도 전에 발표된 7·4 南北共同声明으로 韓半島에도 긴장완화의 기운이 돌 것으로 기대했으나 南北對話가 차츰 상호간의 주장으로 맞서는 것을 보고는 1973년 5월 3일 발표한 「70年代의 外交政策교서」에서 “韓半島의 불안한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現在 추진되고 있는 南北和解가 그리 쉽게 단시일안에 가능할 것으로 믿지 않을것”이라고 실망을 표시했다.

그後 美国行政府는 “北韓의 새로운 敵對行爲 가능성에 대한 경고적 動因을 마련해 주기 위해”註2) 美国의 계속적인 對韓無償軍援과 駐韓美軍의 必要性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美国務省일각에서는 1974年 9月 4日 美·東独修交協定조인을 계기로 “이것이 바로 分断國에 대한 美国外交의 先例가 될수 있다”고 말하면서 韓國·越南 등 分断國家들이 모두

유엔에 가입하는 경우 美國은 北韓 및 越盟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닉슨행정부때의 美國의 對北韓政策은 東北아시아의 완전한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接近이 必要하다고 느끼면서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는 確信이 서지 않은 채 딜레마속을 헤메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밀려 다음 행정부로 이관되었다.

(3) 포드의 對北韓政策 硬化

닉슨의 辭任에 있어 1974年 8月 9日 美國大統領에 취임한 제럴드 포드는 인도차이나 半島의 赤化를 계기로 北韓에 對한 태도에 硬直性을 보였다.

포드대통령은 1975年 2月 1日 1976 회계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駐韓美軍의 必要性을 역설했으며 제임스 슬레징거 國務長官은 같은 해 2月 11日 年例 國防 報告書에서 東北亞의 美軍據點은 韓國이라고 말했다.

포드행정부때의 美國은 인도차이나 赤化 이후 아시아에서의 공산 세력 팽창 가능성에 대비, 중공과 소련에 대해 한편으로는 관계개선을 더욱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東北아시아에서의 美國의 세계전략을 재편, 強化했다. 인도차이나 赤化 직후 中共 주변 국가들에 의한 中共接近 러시와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美軍基地受難에 대하여 美國은 워싱턴-東京-서울 軸을 강화함으로써 均衡을 유지하려 했던 것 같다.

포드행정부는 北韓의 계속적인 對美接近모색에 대해서는 4者관련 당사국회답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맞섰다.

키신저는 1975年 9月 유엔總회에서 駐韓유엔軍사령부의 장래와 休戰體制의 再編問題協議를 위해 南北韓과 美·中共이 參席하는 4者관련 당사국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1976年 9月 30日 유엔總회에서 다시 4者회담안을 더욱 구체화 시킨 다음과 같은 3단계 4者會談案을 제안했다.

제 1 단계로 韓國과 北傀가 豫備會談을 열어 회의규모 議題를 다루고 美國과 中共은 옵서버로 參席한다.

제 2 단계 회담은 南北韓간의 예비회담에서 구체적 결과가 있을 때 개최하고 이 단계에서 美國과 中共은 공식적으로 參席한다.

제 3 단계 회담은 앞의 두 단계에서 얻은 결과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얻기 위한 것으로 다른 나라들이 參與하는 확대국제회의로 개최한다.

이상과 같은 키신저의 4者회담안은 상당히 現實성과 合理性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北韓은 이를 거부했다.

이 案은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목적을 노린 것이라고 해석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北韓의 對美接近攻勢에 대한 썩기가 될 수 있었다.

키신저는 우선 南北韓의 豫備會談을 제시함으로써 중단된 南北對話를 다른 곳에서 찾을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본격적인 회담이 열릴 경우에는 관련 당사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그의 힘의 政治哲學에 입각한 해결책을 내다 보았던 것 같다.

키신저는 1975年 1月 17日 時事解説家 빌 모이어스와의 TV 회담에서 中東을 除外한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美國과 소련을 실질적인 共存策과 몇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협력정책까지도 추구해

왔다"고 밝히고 "韓半島를 포함한 極東地域에 있어서 兩超強國 사이에 利害의 相衝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韓半島 問題 해결에 있어서도 北韓과 같은 弱小政權과의 협상보다는 소·中共과 같은 강대세력과의 협상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다.

포드행정부의 이같은 對北韓태도 硬化는 1976年 8月 18日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더욱 굳어 졌다.

(4) 北韓의 對美接近攻勢와 카터의 宥和정책

그러나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北韓이 美國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애교를 부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北韓은 美國과의 硬化된 관계에서 엉뚱한 행패를 부림으로써 이러한 사태의 再發을 막으려는 美國을 協商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었다. 北韓은 이것을 兩者간의 關係를 發展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1977年 7月 14日 美軍헬리콥터 격추사건과 이것의 처리과정에서 北韓이 美國에 보인 태도도 바로 이러한 脈絡에 속하며 北韓이 2백해리 경제수역과 국제법상에 關係가 없는 海上軍事경제선을 설정한 것은 "美國과 日本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註3) 고 관측되었다.

駐韓美軍의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지미 카터 民主黨후보가 美國大統領에 당선되자 北韓의 對美接近攻勢는 카터와 金日成 간에 親書가 교환될 정도로 진전했다.

駐韓美軍의 철수는 美國의 國防費를 줄인다는 경제적 목적과 합

게 駐韓美軍을 철수시킴으로써 美國과 北韓간의 관계를 好轉시킬 수 있고 그것은 다시 南北韓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

北韓은 카터에 의해 단행될 駐韓美地上軍의 철수를 對南戰略을 위한 유리한 상황의 造成으로 보고 이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駐韓美軍의 完全撤収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偽裝平和攻勢를 다하고 있다.

“駐韓美軍의 철수가 진행될 향후 5年동안 北韓은 양전한 태도를 보일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註4)

北韓은 美國이 中共과 和解를 시작할 때 臺灣 주둔 美軍을 급속히 철수시킨 사실을 韓半島에서도 對北韓接近 모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래서 金日成은 美·中共이 和解할 때 중개역할을 했던 파키스탄을 통해 카터에게 두차례나 美·北韓관계개선을 희망하는 親書를 보냈다. (註5)

카터는 金日成에게 回信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韓半島問題에 관한 美國정부의 기본입장은 韓國政府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는것”임을 밝히고 “우선 南北會談의 재개 등 韓半島 긴장완화를 위한 韓國의 對話에 성의를 보이도록” 촉구한 것이었다고 한다. (註)

카터는 韓半島問題를 「힘의 政治」에서가 아니라 對話誘導로 接近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南北對話가 膠着狀態에 빠져있는 이상 美國이 어떤 이니시에이티브를 갖고 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카터는 1977年 3月 17日 유엔특별회의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아시아敵性國과도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美國務省은 카터가 말한 아시아 敵性國에는 北韓이 包含된다고 설명했다. 카터가 유엔에서 연설하고 나온 후 베풀어진 리셉션에는 北韓대표에게도 초청장이 발부되었다. (이 초청장은 발트하임유엔사무총장 명의로 되었고 北韓대표는 不參했다)

카터는 또 그 이튿날인 1977年 3月 18日을 기하여 北韓, 베트남, 캄보디아, 쿠바에 대한 美國市民의 여행제한을 정식으로 해제했다.

이 일련의 움직임은 東西和解를 모색해 온 美國外交政策의 일반적인 原則이 확대 적용된 것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美國의 對北韓關係에 관한 중대 變化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東京에서는 3月 18日 朝總聯副委員長 李季白이 카터에 아첨하는 기자회견을 하여 주목되었다.

李季白은 "美國은 韓半島政策을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하고 金日成은 "카터씨에게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카터대통령을 正義의 사나이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공언했다.

李季白은 나아가 "北朝鮮과 美國은 관계를 정상화 해야 한다... 우리는 美國과 對話하는데 어떠한 條件도 붙이지 않는다. 美軍철수를 先行시키라든지 하는 어떠한 條件도 붙이지 않는다. 우리는 최종적인 평화조약의 체결, 美國철수, 그리고 兩國人民間의 관계개선을 包含하는 모든 현안을 토의할것을 재의한다"고 말했다.

李季白의 이 기자회견에 대해 美國務省은 興味로운 사태진전이라고 논평하면서도 北韓의 底意는 對美平和協定을 위한 제스추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뉴욕 타임즈紙의 말콤記者는 李季白의 이 회견을 보도하면서, "사실 최근 韓國政府의 美國에 대한 발언은 北韓의 그것보다 더 비판적이었다"고 하여 北韓의 對美接近攻勢를 찬양했다.

北韓은 카터행정부에 대한 또다른 하나의 接近努力으로 美國에 대한 호칭을 「美帝」에서 「美國」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1977年 1月 12日字 「로동신문」은 駐韓美軍철수를 반대한 존 베시 유엔軍사령관을 비난하면서 「美國의 好戰체증」이라고 하여 그들이 美軍철수를 단행하려는 카터대통령과 베시將軍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비치었다.

2月 7日 北韓軍創建 29주년 記念報告會에서도 北韓은 駐韓美軍 철수와 對美平和 協定問題에 언급하면서 「美國」이라고 호칭 했다.

北韓은 또 1977年 4月 22日 뉴욕 타임즈紙를 통해 美·北韓 간의 平和協定이 체결되고 이 협정하에서 지속적인 평화가 유지된 뒤라야 南北韓간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先 對美平和協定, 後南北對話」의 방식을 강조했다.

카터의 開放기미를 탄 北韓은 뉴욕 타임즈紙에 朝總聯系 신문 朝鮮新報의 主幹이라는 崔우균의 기고를 통해 美國에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면서 "統一을 위한 南北對話는 韓國의 現政權이 다른 政權으로 대체될 경우에 재개될 것"이라고 말하고 "카터는 과거의 낡은 방식에 결코 얽매이지 않고 平壤政權과의 對話를 시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아첨했다.

美國은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과거의 敵性국가운데 北韓을 包含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北韓에 관한한 韓國의 參與없는 接觸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카터행정부에 들어와서도 사이러스 밴스國務長官이 첫 기자회견에

서 "美国은 한국정부와 完全하고 充分한 협의없이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것을 비롯, 國務省 고위관리들은 기회있을때마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 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北韓의 엉뚱한 행패가 저질러졌을때 美国은 전반적 관계개선을 위한 것은 아닐지라도 부분적인 문제에 관해 對北韓接觸은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사실과, 「韓國參與없이 北韓과 接觸 안한다」는 "韓國參加 전제로 北韓과 接觸한다"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것 같다.

註 1 : ECONOMIST 誌 NOV. 15. 1969.

註 2 : 1974. 3. 4. 슬레징거 美国防長官이 議会에 제출한 国防白書
에서

註 3 : U.S. NEWS & WORLD REPORT 誌 Aug. 15, 1977.

註 4 : NEW YORK TIMES 紙 1977. 8. 2 社說

註 5 : NEWSWEEK 誌 PERISCOPE February 27, 1977.

註 6 : 朝鮮日報 1977. 3. 6.

第5章 美·北韓接觸과 韓國安保와의 關係

美·北韓接觸은 韓國安保上 두가지 相反된 측면에서 評價될수 있다. 그 하나는 美國과 北韓이 接觸함으로써 韓國의 安保가 상대적으로 弱化될 것이라는 면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오히려 閉鎖的인 北韓의 門戶를 간접적으로나마 開放케 함으로써 韓國安保에 보탬이 되리라는 假定이다.

물론 어떠한 형태의 接觸인가에 따라 不利한 要因을 가져올수도, 有利한 結果를 빚을수도 있다. 美國이 만약에 越南戰을 처리하기 위해 越盟과 接觸한 것과 같은 형태의 對北韓接觸을 할 경우, 韓國과 韓國민은 전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友邦이 지금까지 共同의 敵으로 삼아 온 北韓과 密接해 진다는데 對한 心理的 不安과 孤立感을 느낄 것이고, 그러한 상태는 結局 韓國의 安保를 위태롭게 하는 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反面, 美國이 지난 24年 동안 北韓을 상대로 하여 韓國의 참여 없이 調印된 停戰協定을 준수 함으로써 北韓의 對南도발을 抑止해온 것처럼, 北韓과의 接觸을 통해 韓半島에서의 새로운 平和機構를 모색하는데 寄與할 수 있다면 그것은 韓國安保를 위해 有利한 結果를 빚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美~北韓接觸은 韓國의 安保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韓半島情勢만이 內包하고 있는 狀況의 特殊性 때문일 것이다.

韓半島의 特殊性이란 南北韓이 거의 同一한 程度로 美國 中共 蘇聯 등의 政策的影響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 強大國間的 緊張緩和政策이 반드시 같은 程度로 南北韓간의 緊張을 緩和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點에 있다. 같은 分斷國家로서 周邊強大國의 影響下에 있는 東西獨은 美·蘇간의 대탕트와 거의 併行하여 「한 民族간에 두개의 國家」를 상호 認定할 수 있었다.

途餘曲折이 없었던것은 아니나, 東西獨의 相互承認은 크게 두가지 要因으로 可能했던 것 같다. 첫째는 東獨이 「獨逸全土代表權」을 拋棄하고 現在의 境界線을 認定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西獨이 먼저 東歐共產國들과의 國交正常化에 成功, 外交的이니시에이티브를 장악함으로써 可能했던 것이다.

그런데 北韓當局은 과거 西獨이 東獨에게 試圖했던 것과 같은 韓國의 단계적, 現實的 和解試圖를 全적으로 거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韓國은 西獨과는 달리, 北韓을 外交적으로 포위, 孤立 시킬 만한 狀況에 處해 있지 않다. 따라서 韓半島의 情勢는 美蘇간의 緊張緩和, 美中共간의 接近에도 不拘하고, 오히려 그때문에 더욱 南北韓간의 緊張은 高潮된다는 特殊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특히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은 蘇聯 또는 中共이 美國과의 平和共存을 重視하고 있는것을 그들의 對南政策과 合致하지 않는 가장 큰 要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때문에 北韓은 「獨自的」으로 美國과 接觸함으로써 韓國을 困境에 빠뜨려 그들의 從來의 對南政策을 더욱 效果的으로 전개하려 할런지도 모른다.

그런 가운데서도 南北韓간의 緊張狀態가 폭발되지 않고 있는것은 強大國간의 힘의 均衡이 아직은 어느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힘의 균형을 現爽적으로 維持해 주고 있는 것은 駐韓美軍을 基軸으로 한 韓美安保体制을 一方으로 하고, 北韓에 대한 中共 및 蘇聯의 三角軍事同盟体制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冷戰構造때문이라 하겠다.

그런데 美國의 카터行政府는 이 冷戰構造를 根本적으로 뒤흔들리게 하는 政策을 展開하기 시작했다. 駐韓美地上軍의 철수政策은 바로 그 冷戰構造瓦解작업의 첫단계 조치이기도 하며, 그 다음 단계로 미국이 만약에 어떤 형태건 北韓과 接觸하게 된다면 韓半島의 힘의 균형은 건잡을수 없이 기울기가 쉽다.

駐韓美軍이 철수하고 美北韓接觸이 現實化될 경우 韓國의 安保는 오로지 韓美相互防衛條約 (現行 停戰協定 또는 이에 代替할 다른 平和裝置가 있다면 치더라도)에만 依存하게 될것이다. 그럴 경우에 韓國安保의 座標는 어떻게 定立될 것인가, 또한 생각할수 있는 問題點은 무엇인가.

다음에 南北韓의 安保構造 및 體制上的 比較를 통하여 美~北韓 接觸이 韓國安保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것인가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1) 對外條約 및 安保體制上的 問題

韓國安保의 根幹은 1953年 10월 1일 締結된 韓美相互防衛條約을 中心으로 한 韓美安保體制이다. 그런데 이 條約의 特性은 美國의 韓國防衛義務를 규정한 第3條에 있다. 널리 알려진대로 同條約 第3條는 「……일방의 條約國에 대한 武力 공격이 自國의 平和 및 安全을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認定」 하면서도 「自國의 憲法上的 節次에 따라 共通의 위협에 대처할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 또는 북아메리카에 있어서 1 또는 2 이상의 條約國에 대한 武力공격을 全條約國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된 NATO 條約(第5條)과는 매우 對照的이다.

따라서 韓國은 韓美條約을 NATO 型으로 補完, 美國이 韓國에 대한 武力공격에 自動적으로 개입, 反擊한 條約上의무를 지도록 수없이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國은 條約의 補完變更은 고사하고 어떠한 다른 형식으로도 韓國측의 요구를 수락한 적이 없다.

1968년 이래 10차에 걸쳐 열린 韓美安保會議에서도 그때마다 發表된 共同聲明은 언제나 「相互防衛條約에 따라」 신속, 有效하게 지원할 것을 다짐했을 뿐, 「즉각 개입」을 약속한바 없으며, 그보다 앞선 1965년 5월 18일의 차~존슨聲明, 1966년 10월의 韓美首腦聲明에서도 美國의 입장은 變치 않았다.

1977년 7월 25~26일 美地上軍 撤收를 論議한 서울에서의 第10次 韓美安保協議會議에서도 美國의 그러한 입장에는 變함이 없었다.

美國의 對韓防衛義務規定에 대한 美國측의 해석이나 입장이 이처럼 不變하는 것은 이른바 門羅主義形式(Monroe Doctrine Formula)에 따른 것이다. 註1)이 門羅主義形式에 따른 美國의 對韓防衛義務는 具體적으로 두가지 경우에 국한해서 이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첫째는, 美國은 韓國의 内部的 安全 또는 쿠데타에 의한 政府 顛覆의 결과에 대하여 軍事行動을 취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오로지 外部로 부터의 武力공격에 한하여 條約上의 義務를 진다는 것이다. 둘째로 美國은 韓國의 合法的인 支配地域으로 認定된 地域(즉 休戰線以南)에 대한 武力공격의 경계만 防衛義務를 이행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상 두가지 경우에 국한된 것이 韓美相互防衛條約에 따른 美國의 條約上의 義務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註2)

이것은 첫째 韓國측이 休戰線을 넘어 北韓領域을 공격할 경우 美國측이 條約上의 防衛義務를 지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韓國內의 政治的 變化의 결과 즉 內亂의 성격을 지닌 쿠데타나 폭동 또는 叛亂등에 美國이 軍事的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16 軍事革命직후 유엔軍의 作戰權限界를 분명히 한 國家再建 最高會議과 유엔軍司令官간의 共同聲明은 後者の 경우를 실재로 확인해 주고 있다. 註3)

이렇듯 韓美安保體制의 基幹을 이루는 韓美相互防衛條約은 制限的, 限定的 의미를 內包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과 蘇聯, 北韓과 中共간의 防衛體制는 거의 制約없는 「相互援助」를 약속하고 있다.

北韓은 1961年 7月 6日 蘇聯과, 이어 同年 7月 11日에는 中共과 각각 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을 締結했다.

北韓~蘇聯과의 條約은 「締約國의 一方이 어떤國家 또는 國家聯合으로 부터의 軍事的 공격을 받아 戰爭狀態에 들어갔을 경우 他一方은 즉각 그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軍事的 또는 그밖의 다른 援助를 공여한다」 (第1條)고 되어 있다. 戰爭이 勃發했을 때 그 戰爭의 성격을 따진 다음에 「자기의 憲法절차에 따라 共同으로 대처한다」고 선언한 韓美條約에 비하면 北韓~蘇聯간의 條約은 아무런 事前條件도 절차도 없이 거의 無條件으로 北韓은 支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條約에 대한 追加的인 有權해석이나 雙方의 諒解사항도 없으므로 北韓이 만약 戰爭을 도발할 경우 (또는 北韓의 政權이 어떤 內部的인 挑戰으로 崩壞 또는 顛覆危脅에 처했을때) 비록

蘇聯이 이를 願치 않는다 해도 일단 어느 形態건 支援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中共과의 條約은 두가지 면에서 蘇聯과의 條約보다 훨씬 더 緊密하고 友好的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蘇聯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軍事的 또는 그 밖의 援助를 제공한다」고 그친데 비해 中共은 한발 더 나아가 「雙方은 共同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여 締約國 雙方中 一方에 대한 어떠한 나라의 침략도 방지한다」 (第2條)고 덧붙여져 있다. 즉, 「모든 조치를 취하여... 어떠한 침략도 방지한다」는 것은 北韓이 공격을 받기 이전일지라도 「침략」을 사전에 방지할 必要가 발생했다고 간주될 때는 中共軍의 北韓進入을 포함한 「사전조치」를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特徵은 각각 條約前文에 明文化한 條約 정신상의 차이이다.

北韓과 蘇聯은 締約國間의 「社會主義的 國際主義原則에 바탕한 友好關係를 발전시켜.....國際聯合의 目的 및 原則에 따라 極東 및 全世界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 및 強化를 促進할 것을 希望한다」고 條約前文에 明記하고 있다. 「社會主義的 國際主義原則」을 내세운 것은 이데올로기의 同質性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國際聯合의 目的 및 原則에 따라」를 挿入한 것은 아마도 北韓단독의 불필요한 불안정을 制動하기 위한 蘇聯의 意圖가 반영된 것인지 모른다. (4)

그러나 北韓~中共간의 條約前文에는 아무런 條件도 制動장치도 발견되지 않는다. 즉 中共과 北韓은 條約前文 가운데 「.....마르크스~레닌主義 및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原則에 바탕하여.....全력을 다해 兩國間의 兄弟와 같은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關係를 一層 強化發展

시켜……아시아 및 全世界의 平和를 지키고 또한 공고히 할것을
결의한다」고 의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北韓~中共간의 條約은
다분히 「戰鬪的」인 것이라고 할수 있다.

軍事同盟關係를 條約으로 明文化할때 締約国간의 政治的 同質性,
이데올로기의 連帶性을 앞세우는 것은 매우 重要的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條約 그 자체의 여러 義務規定들을 不變의 것으로 만드는
大義名分이기 때문이다.

政治的 理念의 等質性을 강조한 것은 共產主義國家에게만 국한된 것
은 아니다. 北大西洋 條約도 그 前文에서 「民主主義의 諸原則, 개
인의 자유 및 法の 支配위에 구축된 국민의 자유, 공동의 遺産
및 文明을 擁護할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같은 아시아 國家지만 美~比, 美~中(華民國) 防衛條約 前文에서
도 똑같이 「兩國國民이 앞서의 戰爭(제 2 차대전)중에 同情 및 相互
의 理想의 共通된 유대에 따라 함께 帝國主義者의 침략에 대항하
여 싸우기 위해 결속하기에 이른 관계를 상호간에 자랑스럽게 想起
한다」고 했다. 경우는 다르지만 美日安保條約에서도 條約의 의미와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무책임한 軍國主義가 아직 世界에서
驅逐되지 않았으므로 前記의 狀態(固有의 自衛權을 행사할 有効한
수단을 보유하지 않은)에 있는 日本國에는 위험이 남아있다」고 明
示한 美日安保條約前文은 美國이 왜 日本의 安保를 지켜주어야 하는
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同盟国간의 防衛條約은 대체로 그 前文에서 明示되고
강조된 條約精神으로 그 義務의 強度를 짐작케 하고 있다.
그런데 唯獨 韓美防衛條約만이 그러한 條約精神을 主唱하지 않은 이

유는 무엇인가. 韓美條約에서는 「締約國의 모든 國民 및 政府는 함께 平和裡에 살려는 願望을 再確認하고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平和機構를 강화할 것을 希望한다」고만 되어있다. 「平和機構의 強化」를 希望한 것은 共產主義나 自由民主主義 體制나에 대한 韓國民의 希望이라기 보다는 다만 韓半島에서의 平和機構(例컨데 休戰協定)를 存続·強化시킴으로써 이 地域에서의 「힘의 均衡」을 期하고 韓半島를 緩衝化, 中立化시켜 東아시아에서의 平和를 期하자는 美國의 一方的인 希望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假說에서 推斷하건데 韓國이 만약 美國의 「希望」에 逆行되는 어떤 「統一의도」를 실천에 옮기려 한다면 美國은 아마도 韓國으로 부터 防衛義務와 역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分離시키려 할 것이다. 駐韓 美地上軍의 철수정책을 그러한 의미에서의 부분적인 分離정책 (Disengagement Policy)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것이다.

실제로 韓國은 두가지 측면에서 美國의 「希望」에 逆行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첫째로 美國은 韓國의 「彈圧的인 內政」이 外部의 공격을 유발하는 要因으로 보고, ⁽⁵⁾ 韓國에게 그와같은 政策을 避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카터行政府周辺의 政策的勸告를 對韓政策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地上軍철수정책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韓國의 經濟的 急成長과 그에 随伴된 自主國防能力의 伸長이 南北韓 어느쪽도 速戰速決에 의한 勝利를 거두지 못하게 하려는 美國의 韓半島 緩衝化政策에 逆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駐韓美軍撤収에 따른 韓國軍의 補完策으로서 主로 防禦用 武器만을

供与하려는 美国의 意图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제 10차 韓美安保協議 會議에서도 美側이 駐韓美 2師團 裝備中 M 60型 탱크의 供給만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그같은 배경을 說明해 주고 있는 것이다. (6)

韓國은 이제 美国과의 防衛條約과 자체의 安保體制를 再整備, 強化하지 않으면 안될 時點에 이른것 같다. 먼저 韓美防衛條約의 問題點과 그 補完 또는 改善策을 살펴본다음 韓國의 安保體制를 占檢해 보기로 하자.

韓國은 1954年 2月 1日付 文書로 韓美相互防衛條約 제 3 조에 대한 美国側의 「理解, 文書 (同年 1月 28日付)⁽⁷⁾」를 受諾하였음에도 그후 機會있을 때마다 繼續해서 同條文의 補完을 거듭 요망 또는 요청해 왔다. 軍事同盟의 성격을 지닌 雙務條約 체결 이후 特定條文에 대한 「理解」文書가 締約國의 一方으로 부터 다른 一方으로 전달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그것을 얼떨결에서인지 선뜻 받아들인 韓國이 駐韓美軍이 撤収 또는 감축될때면 그 條文의 補完을 들고 나와 끈질기게 절실한 소망을 表明하는 일도 드문 일이다.

그래 그런지는 몰라도 韓國側의 그러한 소망은 번번히 黙殺되어 왔다. 韓美防衛條約에 대한 韓國側의 소망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第3條를 아무런 附帶條件없는 美国의 「즉각개입」조항으로 補完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韓美間의 傳統的인 友好와 友愛精神을 挿入함으로써 兩國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相互依存關係임을 강조하는 「共同運命體」的 規約를 明文化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側이 그 두가지를 그저 소망만 한다고 美国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아시아大陸에서 발(地上

軍)을 빼고 과거의 敵들과 손을 잡으려는 美國이 이제 새삼스럽게 韓國의 소망과 입장만을 配慮하여, 南北韓의 어떠한 現狀打破的 試圖도 共히 抑止하려는 裝置로서의 韓美防衛條約을 補完하지는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美國이 北韓의 軍事的危脅에 대하여 韓國과 보다 더 友愛的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만들려면 韓國은 그에 앞서 몇 가지 條件조성, 즉 對美보장책을 先行시키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힘에 의한 통일 (Unification by force)」의 도를 完全무결하게 扞拭시키는 對美보장이다. 朴正熙大統領의 6. 23 平和宣言이나 不可侵協定締結에의는 顯在的으로는 韓國이 武力統一政策을 포기하고 平和指向의임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의 朝野는 아직도 潛在的으로 韓國이 「힘에 의한 통일」의도를 完全히 포기했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韓國의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그에 따른 自主國防力の 強化를 北韓에 대한 阻止力으로서 보다도 攻擊能力으로 評價하는 것이다.

카터의 駐韓美軍撤収政策樹立에 寄與한 側近 브레인중의 한 사람인 헨리오웬 (Henry Owe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새로운 韓國戰爭을 避하는 것은 向後 10년간의 美國의 최고정책순위가 되어야 할것이다. 南北韓간의 대체적인 힘의 균형과, 이들에 대한 강대국들의 은연중의 自制압력은 (南北간의) 공공연한 攻擊의도를 저지하게 될것이다.』 (8)

오웬이 말하는 「강대국들의 은연중의 自制압력 (the Constraints implicitly imposed by the major powers)」중에는 駐韓美軍撤収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駐韓美軍의 철수는, 經濟的으로

성장하고 그에 비례하여 自主國防能力이 增大된 韓國을 北韓의 能力에 均衡있게 맞추어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즉 南北간의 均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駐韓美軍을 철수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년(77년) 5月 26日 지미 카터 美國大統領이 기자회견을 통해 駐韓美軍撤収의 주요이유로서 「韓國의 經濟成長과 自主防衛能力」을 들고 있는것도 그와 같은 배경을 說明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아마도 駐韓美地上軍의 存在가 北韓에 대한 韓國의 공격能力을 增大 시켜주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리하여 美軍이 韓國에 있는동안 「美國이 顧치않고 韓國이 일으킬지도 모를」戰爭에 말려서는 안되겠기 때문이다.

사실 李承晩前大統領의 北進政策을 두려워 한 나머지 武器供給을 꺼려 결국 6.25南侵을 초래케 한 美國은 아직도 變함없이 韓國의 공격가능성을 두려워 하고 있으며, 오늘날 韓國의 經濟的 自立과 潛在的 核保有能力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能力이 없던 休戰직전, 美國은 李承晩의 北進危脅을 단순한 「危脅」에 불과한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당시의 아이젠하워 大統領은 李承晩에게 「北進」을 공식으로 포기할 것을 강요하다시피 했고, 그 代價로 韓美相互防衛條約을 체결하겠다고 言約했다. (9) 美國의 그와같은 「北進恐怖症」은 1970年 2月 24. 25. 26日의 3日間 上院外交委 對外公約小委(사이밍턴聽問會)에서 있던 윌리엄 포터 駐韓美大使(당시)의 証言에서도 表明되고 있다. 그는 韓國軍이 休戰線 거의 全域을 담당하고 있다는 証言에 대해 사이밍턴의원이 『그렇다면 왜 美軍 一個師團을 철수시키지 못하는가』고 反問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이나 마찬가지로 그나라(韓國)의 平和的統一에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韓國)이 만약 어떤 目標의 追求를 위하여 休戰線을 넘는다면……한반도 北쪽에 있는 두나라 즉 中共과 蘇聯이 그러한 사태를 受動的으로 받아 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포터는 이어 『美軍이 韓國에 없는 경우에도 그렇겠으나』는 질문에 대해 『充分히 그렇다』면서 『특히 韓國(의 공격)이 成功할 기미가 보인다면 中蘇 兩國의 行動을 불러 일으키기 쉽다』고도 했다. (10)

韓國이 美國의 그러한 潛在的 공포증을 払拭시키기 위하여서는 北韓 또는 中共을 상대로 「戰爭狀態종결 선언(Declaration on the termination of a state of war)」을 하는 方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물론 國際法上効力을 발생 할런지는 분명치 않지만 통상적으로 그러한 선언은 休戰이 성립되어 「사실상의 平和」가 存在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공식적, 법률적인 의미에서 戰爭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平和條約(또는 講和條約)」 체결 이전의 단계에서 취해지는 조치이다.

역사적으로는 1918年 蘇聯이 東유럽諸國에게 한 선언, 그 이듬해에 中國이 獨逸에 대하여 선포한 大總統令, 또 1921년에 美國이 獨逸,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을 상대로 내린 결정 등 대체로 戰勝國이 敗戰國에게 보내는 전쟁종결상태의 공식적인 意思表示형식으로 취해져 왔다. 註1)北韓을 「국가」로서 認定하지 않고있는 이상 한국이 그들을 敗戰國으로 여길수도 없고 또한 北韓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기는 하다. 하지만 韓國은 이미 南北對話에서 北韓의 存在를 하나의 기정사실(fait accompli)로 認定해 버린 前例가

있으며 北韓이 이를 수락하건 안하건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同意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國際法上 「戰爭狀態」는 공식으로 종결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中共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선언을 계기로 앞으로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기쁨을 마련함과 동시에 美中共 관계 정상화에 앞서 이루어 진다면 美國의 對韓信賴感을 증대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安保條約補完을 위한 두번째 先行要件은 韓國의 政治體質개선과 民主力량의 과시에 있다고 본다. 美國이 NATO는 말할것도 없고 日本이나 필리핀 中華民國과의 防衛條約에서 「自由·民主」, 「帝國主義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방위의무」 또는 「前戰爭에서의 友愛」등 締約雙方간의 공통되는 紐帶정신을 내걸고 있으면서 唯獨 對韓條約에서만은 그런 공통성 보다는 締約後에 特定條文에 대한 制限的의미 부여를 한것은 무사히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그것은 美國이 韓國을 인식함에 있어 그들과 等質的인 政治體制나 政治理念 또는 그러한 바탕위에서의 건통적인 紐帶感이 不在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韓國이 만약 經濟發展과 같은 정도의 政治的 發展을 보인다면 美國은 아마도 아시아에서 日本과 더불어 그들이 지켜야 할 價值가 있는 「民主主義的 先進工業國」으로 대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美國이 만약에 韓國에서 政治的, 經濟的으로 相互依存(Inter-dependent)할수 있는 等質的인 價值를 발견한다면 방위조약상으로도 NATO 또는 최소한 日本만큼이라도 重視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수가 없을 것이다.

美國이 인도차이나에서는 잘못 介入한 것으로 인식하고 철수를 주저치 않으면서도 西歐를 비롯하여 中東에서는 이스라엘을, 아시아에

서는 日本을 重視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政治·經濟的 等質性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美國과의 「血盟관계」를 되뇌임은 無益하다고밖에 할수 없다. 韓國이 그러한 측면을 계속 무시한다면 美國은 아마도 韓國을 抑止 또는 견제하기 위한 다른 하나의 수단으로서 北韓과의 接觸을 促進시킬지도 모르는 것이다. 美國이 수없이 되풀이한 對外公約에도 불구하고 越南共和國과의 「血盟관계」를 헌신적처럼 맹개치고 越盟과의 관계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前者가 기왕에 等質的인 가치를 尊重하는 우방으로서 처신하지 못할바에야 차라리 戰爭을 종결짓고 과거의 敵이라도 손잡아 인도차이나의 平和를 이루기라도 하자는 政策的 配慮에서 취한 措置였는지도 모른다.

韓美防衛條約의 補完과 더불어 重要的 것은 韓國자체의 安保體制를 再整備강화하는 일일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美國이 北韓과 어떠한 형태건 接觸을 전개하고, 그결과 越南에서 보인바와 같이 韓國에 대한 北韓共產政權의 背信的인 軍事的危脅이 加重될 경우 韓國은 단독으로, 그리고 效果的으로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安保體制를 再整備강화하기 위한 技術的인 측면의 問題는 다음節에서 구체적으로 詳述하겠으며 여기서는 다만 그 필요성과 바람직한 樣態만을 지적해 둔다.

美 北韓의 接觸은 1951年 7月 8日 北韓占領下의 開城에서 시작된 休戰豫備會談을 시초로 이미 실질적으로 지난 26년 동안 繼續되어온 셈이다. 그동안 일관된 南北韓 軍대들의 위치와 기능의 차이는 美國을 단독으로 상대해 온 北韓의 政治的 立場을 강화시켜 준 것이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왜 그럴수 밖에 없었는가. 休戰

會談초기 부터 北韓은 비록 幕後에서 中共의 지시와 영향을 받았지만 協商舞台에서는 시종일관 「發言權」을 행사하는 共產軍側의 대표역을 해온데 비해 韓國軍은 그때나 지금이나 美軍장성이 지휘하는 유엔軍 산하의 한 「전투부대」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現在까지 유엔軍을 주축으로 한 작전행위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온 韓國軍은 제 10차 安保協議會議에서의 合意에 따라 78년 부터는 韓美統合司令部의 일부로 전보다는 뚜렷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NATO의 統合軍이나 美國~캐나다의 北美防空司令部의 경우처럼 특정된 條約上의 義務나 合意된 戰略戰術目標를 위하여 관련각국에서 派遣구성된 성질의 司令部와는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앞으로 구성될 韓美統合司令部에는 부사령관 및 몇몇 참모진만을 韓國軍人으로 充員하되 韓國軍 全体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依然 美軍司令部에게 帰屬될테니 말이다.

NATO나 北美防空司는 多国間의 條約上義務 또는 当事國간의 특정된 合意事項에 따른 임무만을 위하여 자기 本國의 군사조직과는 별개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비해 韓美統合司는 韓國軍의 全기능이 그 隸下에 併合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統合司가 신설된다 해도 韓國軍은 獨立된 작전운영을 할수가 없게 된다. 지금까지의 유엔軍 산하조직과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韓國軍의 獨立的인 작전운영을 위해서는 현체제로 부터의 完全한 脫皮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休戰協定체결 직전 당시의 李承晩大統領이 『통일의 실현없이 休戰을 성립하려 한다면 韓國軍을

유엔軍으로 부터 이탈시키겠다』고 위협하자 美 8軍司令官(당시) 맥스웰 테일러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美 8軍은 복잡한 配線과 톱니바퀴를 갖춘 20氣筒짜리 自動車와도 같다. 만약 (現戰線에서) 유엔軍을 철수시킨다면 그 뒤에 남을 韓國軍은 全的으로 새로운 型의 自動車를 설계해야 할것이다.』

테일러장군의 판단은 四半世紀가 지난 ⁽¹²⁾ 오늘에도 정확한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때문에 駐韓美地上軍이 철수하는 마당에서도 그 補完策의 일환으로서 韓美統合司令部 構想이 案出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軍은 언제까지 8軍이라는 「20氣筒짜리 自動車」의 한 구성요소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언제까지나 그럴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美~北韓이 接近한 결과 韓國安保에 어떤 예측할수 없는 위험이 임박했을 때 그런 상태로는 도저히 새로운 狀況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다.

(2) 軍事戰略 및 技術的인 問題

앞으로 美~北韓간에 接觸이 있다면 그것은 政治的인 次元의 接觸이 될것이다. 왜냐하면 美國은 이미 軍事的 次元에서 休戰成立後 지난 24年間 北韓과의 接觸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美國은 北韓을 상대로 軍事的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問題를 갖고 있지 않은것이다.

美國은 오히려 軍事的으로 休戰이후 지난 24年 동안 해결하지 못한 問題를 이제 政治的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는것이다. 그 政治的 해결을 위하여 美國은 불가피하게 北韓을 상대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그때문에 美國은 北韓과의 어떠한 軍事的대결도 이를 방지 또는 회피하고자 하며, 그 要因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 短期的 要因의 제거로는 금년(77년) 7월 14일 休戰線 北方에서 발생한 美軍헬리콥터 被墜사건의 처리방법 등을 들 수 있고 長期的 要因으로는 美軍의 駐韓을 서둘러 退去케 하자는데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美國은 韓半島에서 北韓과의 軍事的 대결을 회피하고, 그러기 위하여 北韓과 政治的 次要의 대화를 早晚間에 벌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물론 아직은 中共과의 관계정상화도 성취하지 못한 현 단계에서 美國이 北韓을 상대로 관계 정상화와 같은 결정적 이슈를 論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北韓측도 對美 직접 대화나 駐韓美軍철수 등 막연한 구호만이 아닌, 사무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媒体로 내세워 對美接近을 시도할지 모른다.

어찌됐건 北韓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對美接近을 시도할 것이고 美國도 北韓측의 접근내용이 구체적일 경우(例; 停戰協定の 補完, 改善 또는 代替 등의 문제) 北韓과의 接觸을 外面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韓半島에서 美國이 戰爭을 회피할 수 있는 확실한 方法일 경우 美國의 對北韓接觸은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韓半島에서 美國이 戰爭을 회피할 수 있는 方法이 확실해지면 질수록, 그와 反比例하여 南北間의 戰爭確率は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前駐韓美軍司令部 參謀長 싱글리브少將을 비롯한 많은 美軍部 인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南北韓間의 軍事的 不均衡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南北韓間의 軍事的 不均衡問題는 그 補完여하에 따라 바로잡힐 수도 있는 現象的인 문제에 불과하다. 南北間의 軍事的 不均衡 問題를 輕視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南北韓間의 軍事制度的인 측면, 즉 軍事戰略과 그에 隨伴되는 軍運營上의 軍事技術的인 差異에 있는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韓國軍에겐 軍의 存在理由를 분명히 밝힌 積極적인 戰略目標가 없다. 憲法에서 조차 軍 또는 국방에 관한 條項은 「침략전쟁을 부인」한 제 4條, 「公務員의 地位, 책임, 身分, 政治的 中立性」을 규정한 제 6條, 「국방의무」를 법률로 정한다고 規約된 제 34條, 그리고 「國軍의 統帥, 조직, 편성」을 규정한 제 51條뿐이다.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1971年 12月 19日 制定公布)에서도 그 法의 目的이 「大韓民國의 安全을 보장하고 國家保衛를 확보할 것을 目的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을뿐, 國軍의 存在理由와 역할, 戰略目標가 明示되어 있지 않다.

그에 비해 北韓의 軍에 대한 의미부여는 매우 嚴格하고 誇示的이다. 北韓憲法 11條는 「國家는, 内外의 敵對分子의 破壞策動으로부터 社會主義制度를 保衛하며, 思想革命을 강화하여 全社會를 革命化, 勞動者階級化한다」면서 軍의 存在理由를 암시하고 있다.

同 14條는 軍의 역할을 매우 구체적으로 明示하고 있다.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은 全人民的, 全國家的 防衛體系에 의거하여 自衛的 軍事路線을 관철한다.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武裝力의 使命은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勤勞人民의 利益을 擁護하고 社會主義 制度와 革命의 獲得物을 지키며, 祖國의 自由와 獨立과 平和를 지키는 데 있다.」)

또한 北韓勞動黨 規約 제 66條는 「朝鮮人民軍은 朝鮮勞動黨의 武裝力」임을 강조하고 있다. 北韓의 權力者는 그의 군대에게 「무엇때

문에 왜 存在하는가」에 대한 名分과 名譽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北傀軍의 作戰指揮權과 指揮系統은 「國家主權機關」으로 되어 있는 金日成을 「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全般的武力의 最高司令官, 國防委員會 委員長」으로 하여 (憲法 第 93 條) 「國家의 모든 武力을 指揮 統帥 하는것」으로 총집중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北傀軍의 구조는 軍에 대한 黨의 統制와 支配力을 絶對적인 것으로 하는 共產主義 體制 公同의 劃一體制이다.

그러나 北韓을 支配하는 金日成은 ①國家主席을 자칭하면서 勞動黨 中央委의 最高 지위인 ②黨 總秘書長과 동시에 黨의 軍事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③黨軍事委의 委員長으로서 ④北傀軍 유일의 「元帥」 칭호를 独占함으로써 國家와 黨의 二元機構를 통해 軍에 대한 완전 무결한 獨裁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行政執行 機構로 存在 하는 「人民武力部」는 상대적으로 그 권한이 약화되어 有名無實한 存在가 되고 있다. 北傀憲法(第 14 條)에서도 「人民武力部는 政務院의 部門別 執行機關」이라고만 간략히 규정되어 있을뿐이다.

그러면 강력한 獨裁체제하의 北傀軍은 그들에게 부여된 大義名分과 名譽를 戰略目標로 삼아 何時라도 金日成의 命令 一下, 어떠한 種類의 전투나 戰爭에도 즉각 투입될수 있는 體制를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다.

反面, 韓國軍에게는 共產體制下에서 黨과 그 組織이 부여 또는 떠맡긴 이데올로기의 大義名分이 있을수 없다. 民主軍隊로서의 韓國軍은 政治적으로 中立이어야 한다는 것이 信條처럼 되어있다.

그렇다면 共產主義는 비록 韓國內에서는 不法化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은 엄연한 政治的 이데올로기인 이상 韓國軍의 「정치적 中立」

은 一般論的으로는 타당 할지 모르나 韓國의 特殊狀況에서는 矛盾이 아닐 수 없다. 軍이 政治적으로 中立이면서 韓國이 守護해야 할 政治理念과 体制의 反對概念인 共產主義에 反對하는 입장에 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矛盾은 韓國軍에게 戰略目標을 스스로 상실케 할 뿐이다.

클라우제비츠의 말대로 戰爭의 본질이 「다른 수단으로 수행하는 政策의 延長」임을 全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면 軍은 그 소속 국가의 政策을 수행하는 수단이요 도구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機械적으로 作動하는 無機物的인 수단이나 도구는 아니다. 라스웰 (Harold Lasswell) 의 말대로 軍隊가 暴力을 管理 (management of violence) 하는 專問職業으로서 계구실을 하자면 그 조직, 훈련, 작전~운영에 대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명분과 이유가 바로 戰略이며 戰爭遂行의 目標인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프랑스 革命軍이라던가, 독립 戰爭당시의 美國군대에게는 그 大義名分이 뚜렷하였고, 그때문에 그들은 강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이 「政治적으로 中立이어야 한다.」는 형식論理에 구애된다면 그 군대는 일단 유사시에 쓸모없는 나약한 군대가 되기 쉽다. 특히 政治적으로 不安定한 狀況일때 「軍의 政治的中立」은 現實적으로 執權層에게 유리하게 이용되기가 쉬우며, 그러한 例를 우리는 패망한 인도차이나 三國의 政府軍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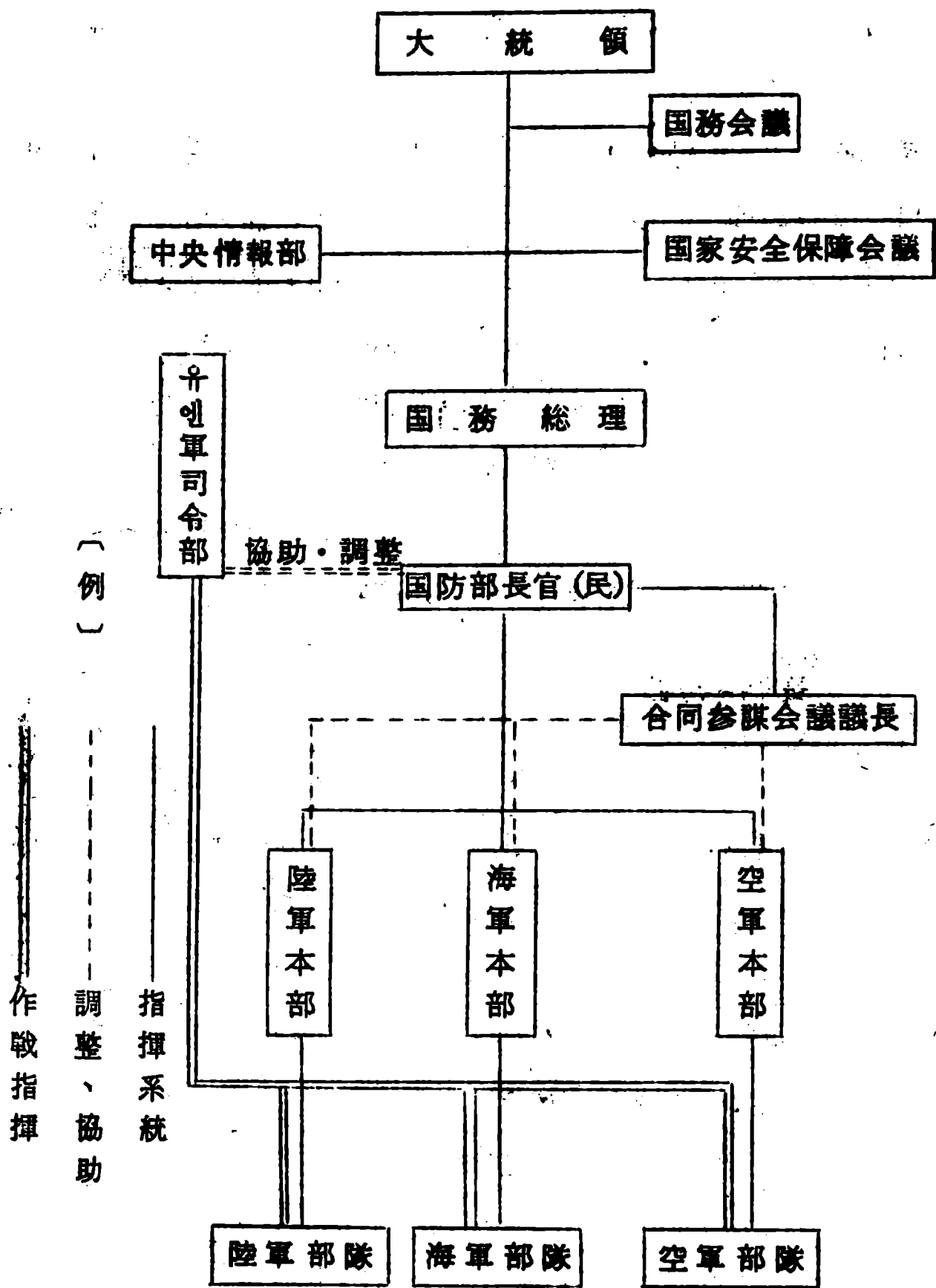
또한 軍의 政治理念的 名分の 欠如외에 軍이 사용하는 주요兵器등 軍提供與國에 대한 依存度가 높은것도 軍을 약화시키는 主要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軍이 強刀하려면 軍의 存在理由~戰略目標가 두

텃해야 하며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兵器등의 自体体系 確立이 必要 불가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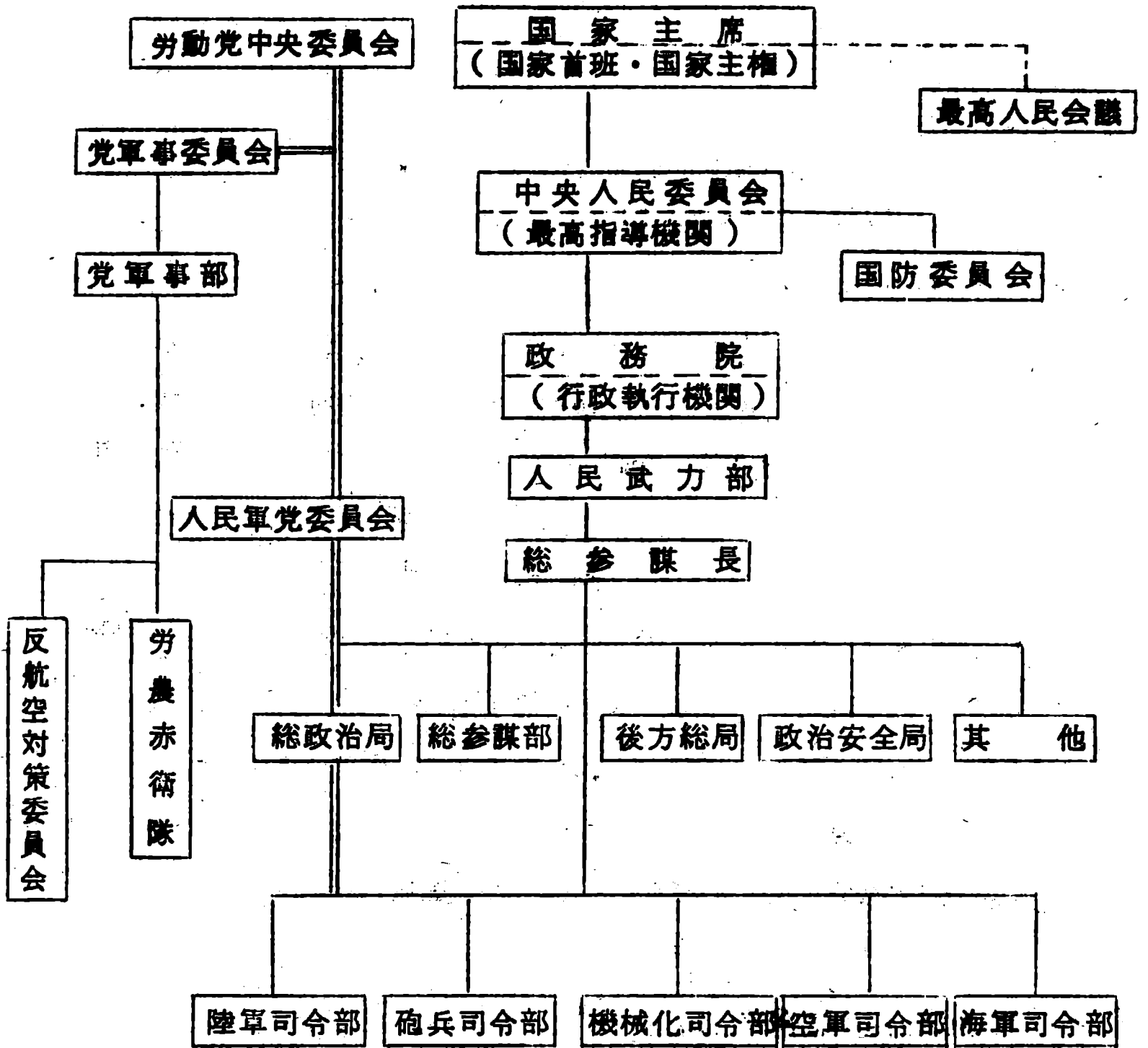
美~北韓接觸과의 관련하에서 이 問題가 중요한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美國이 韓半島에서 戰爭을 回避하려 하고 그 때문에 北韓과의 接觸도 不辭하려 한다면, 그뿐수록 南北韓間의 戰爭發生確率は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美國이 地上軍을 철수하고 새로운 平和機構를 設치한다 해도 오로지 對南戰爭만을 위한 은갖 명분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北傀軍이, 그들이 믿는바대로 戰爭을 일으킬 경우 韓國軍은 홀로 이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때 만약에 韓國軍이 北傀軍과 견주어 온 民族과 國家 앞에 내세울 名分 즉 合目的的인 戰略目標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美國이나 유엔은 韓半島에서의 共產침략에 軍隊나 兵器를 派遣・보급할만한, 國際적으로 납득할만한 명분을 갖고 있지는 않다. 北韓共產軍에 對항해 싸우지 않으면 안될 명분은, 그리고 그를 위한 戰略은 韓國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國軍은 그러한 戰爭을 단독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戰略뿐만이 아니라 軍事技術的인 측면에서도 적지않은 계약을 받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國防機構上의 계약이다.



(第1表) 韓國의 國防機構



(第2表) 北傀軍事機構

第1表 및 第2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南北 어느쪽도 軍統帥權이 최고수뇌에게 있다는 點에서만은 표면상 共通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作戰指揮權(Operational Control)과 指揮系統(Chain of Command)상의 差異에 있다.

널리 알려진대로 현재 韓國軍의 작전지휘권은 國際聯合(유엔)軍司 令官에게 委任되어 있다. 그와 동시에 指揮系統은 大統領이 頂點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國防長官線에서 반드시 유엔軍司令官과의 協 助(Co-operation) 또는 調整(Co-ordination)을 거쳐 陸海空 各軍에 示達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軍統帥系統의 根幹인 軍令權은 유엔軍司令官에게 委任된채로, 軍統帥權者인 大統領은 國防部長官을 통하여 軍政權만을 행사하는수 밖에 없다.

원래 美國式體制를 본 딴 韓國의 國防機構는 軍최고통수권자인 大 統領이 軍政權과 軍令權을 分離, 前者는 行政府인 國防部를 통하여 그리고 後者는 合同參謀會議를 경유하여 行使되도록 된 것이었다. 軍費의 획득과 分配를 前者가, 軍令의 執行을 後者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議會와의 牽制와 均衡(Check and balance)을 前提로 軍을 운영하는 美國만이 갖는 독특한 體制로서 政治的 後進性을 不免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극히 非能率的인 기구 라 하지 않을수 없다. 게다가 作戰指揮權을 外國軍장성에게 맡기고 있는 韓國的 狀況에서 軍統帥權者는 制限된 軍政權만을 장악하고 있 는 셈이다.

韓國의 非能率的인 國防機構에 비해 北韓은 앞서 지적한 대로 黨 의 絶對적인 통제와 지배아래 軍을 묶어둠으로써 黨軍의 최고權力者 (金日成)는 언제든지 그가 원하는 시간과 狀況에서 그가 의도하는 戰略에 맞는 戰爭을 수행할수 있도록 軍機構를 빈틈없이 짜놓고 있다.

그중 몇가지 特色을 살펴보기로 하자.

北傀軍의 作戰指揮權과 指揮系統은 제 2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든 權力을 장악한 金日成이 勞動黨 中央委員會~人民軍 黨委員會를 통한 戰略的임무수행과 中央人民委~人民武力部~總參謀長을 통한 戰術的임무수행으로 併行실천토록 꾸며져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總參謀長의 機能이다.

總參謀長에 하에는 北傀軍作戰의 主軸을 이루는 5個 司令部가 있다. (第 2 表 참조) 사실상 金日成으로 부터 軍의 전반적인 作戰 운영권을 委任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현재의 北韓軍總參謀長(吳振宇·大將)은 陸·海·空軍司令部와 砲兵 및 機械化司令部를 장악, 全軍을 指揮·통할 할뿐만 아니라 對外的인 軍事協定の 調印, 外國軍事사절단·대표와의 會見등을 도맡는 全軍의 頂上的 위치에 있다.

따라서 北傀軍의 總參謀長職은 軍內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위임을 의미하며 金日成의 第一級 直系이기도 하다.

北傀軍의 또 하나의 특징은 勞農赤衛隊의 조직과 訓練양상에서 찾아볼수 있다.

흔히 勞農赤衛隊를 韓國의 豫備軍과 비교하는수가 있는데 이는 당치도 않은 비교이다. 第 2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黨軍事委와 黨軍事部의 직접 統轄下에 있는 勞農赤衛隊는 현역보다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한 「黨軍」이며 「黨의 武裝力」이다. 그것은 이름뿐만이 아니라 ①訓練시간 ②訓練내용 ③裝備面에서 名實 共に 현역에 버금갈 충실한 武力이기 때문이다.

만 18세에서 45세 (韓國에비군은 현역복무후 만 35세 까지이며 장교 및 하사관은 계급에 따라 47세까지)까지의 모든 남자와 18

세에서 50세까지의 모든 독신여성으로 구성된 勞農赤衛隊는 75년 현재 1백 45만명이다. 이들은 各級行政 單位 事業所 및 勤勞場단위로 勞動黨의 各級軍事部책임하에 정규군과 거의 같은 編制를 하고 있다. 直轄市 및 道單位는 軍團, 市·郡 및 大單位事業所는 聯隊, 中小단위 직장 및 부락은 中, 小隊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 赤衛隊는 자기 兵站지원조직을 갖고 있다. 예를들면 병원이나 防疫所는 「醫務隊」, 通信部는 「通信隊」, 商店 또는 糧穀사무소는 「補給隊」식으로 조직되어 각 단위부대는 自給自足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그와같은 단위부대는 北韓 全域에 5천 개 이상이 편성되어 있다. 즉 최소한 5천이상의 「전투부대」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每年 平均 1~2시간, 年間 5백시간 이상의 訓練을 받으며, 訓練내용은 射擊, 銃劍術, 手榴彈投擲, 各種火器의 分解結合, 攻防, 습격, 遊擊, 偽裝, 武裝行軍, 夜間宿營 및 전투訓練, 化生放戰練習, 비상동원, 疎開, 築城, 救急, 對空사격, 통신 및 鉄索網통과, 山野橫斷, 渡河등의 障礙物克服訓練 등 정규군 訓練내용에 하나도 손색이 없다. 이들은 인근지역에 주둔하는 正規軍과 合同訓練을 실시할뿐만 아니라, 때때로 지역對抗의 軍事競技대회를 벌이며, 年一回정도의 全國大會도 열고 있다. 또한 이들이 갖춘 장비도 개인 火器는 正規軍과 똑같은 AK 47 자동소총 (30連發)이며, 종사원 1천명 이상의 직장에는 重機 및 76mm野砲 등 共用火器를 비롯하여 160mm重砲등 各口徑의 박격포, 對戰車砲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 직장에는 6.25당시의 T~34型 戰車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

勞農赤衛隊에 비해 韓國의 예비군은 訓練시간면에서 5분의 1(動員 예비군은 124시간, 일반예비군은 84시간으로 年平均 1백시간 정도)밖에 안되며 訓練내용도 작개전투, 사격, 對空사격, 비상訓練 등 주로 후방郷土守備隊的 訓練에 멈추고 있다. 그나마 작개사격훈련은 年1回 정도이며, 彈藥사용량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장비면에서도 官公署 또는 지역중대에 칼빈과 M1小銃이 備置되어 있을뿐, 共用火器는 극소수이다.

대략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南北韓은 ①軍事戰略面에서의 優劣과 ②軍運營技術上の 格差로 심한 不均衡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한 不均衡상태에서 美國이 만약 北韓과 더불어현재의 軍事的次元 이상의 接觸을 벌인다면 北韓은 韓國에 대한 既往의 軍事的 優位에 더하여, 또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政治的으로도 더욱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것이며, 이는 北韓으로하여금 對南侵略 戰爭의 尤혹을 받게하는 결과를 빚을것이다.

韓國政府는 카터行政府의 駐韓美軍철수 政策에 대한 反作用的 対応으로 自主國防을 對內外的으로 드높이 외치고 있다. 그러나 韓國은 宿命的인 地政學的 与件말고도 이상에서 지적한 대로 아직은 우리의 國防을 自主的으로 운영할만한 태세에 있지 않다.

위에서 지적한 韓美條約상의 결함, 安保체제상의 未備點 외에도 駐韓美軍철수와 잇달아 있을지도 모를 美~北韓接觸에 대한 國民일반의 社会心理的인 측면의 문제, 또는 軍隊가 영향받지 않을수 없는 全般的인 社会紀綱 및 風潮에 관한 欠點은 허다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우선 시급한 문제만을 다루는데 그치려한다. 다만 것처럼 시급한 모든 欠點과 未備點은 美~北韓接觸의 징후와

가창성이 示唆되고 있는 이 時点에서 서둘러 改善, 補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만을 지적해 두는 바이다.

요약해 말하자면 첫째 26년전 테일러 장군이 일깨워 준대로 韓國軍을 8軍(또는 駐韓美軍)이라는 「20 氣筒짜리 자동차」의 한 구성요소로 부터 脫皮시켜 「새로운 쉐의 자동차」로 설계해야 한다. 둘째로는 美~北韓接觸이 시작되고 (비록 韓國을 포함시키는 協商일지라도), 그결과 北韓이 韓國을 征服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韓國軍에게 ①戰略的 目標과 그를 뒷받침하는 政治的 信條를 실제적 법률적으로 부여하고 ②軍의 指揮系統(당분간은 유엔軍 또는 統合司令部의 協助, 調整을 存置, 併行하면서도)을 統合, 劃一化함으로써 일단 유사시에 즉각적이고 効率的인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런다음에 또는 그와 併行하여 ①北韓 및 中共에 대한 「戰爭狀態 종결선언」등을 통해 韓國의 平和的 意志를 内外에 과시하고 ②정상적인 議會기능의 회복, 言論의 自由化, 政治의 活性化등을 통해 友邦美國으로 하여금 對韓信賴感을 회복시킴으로써 韓美방위조약補完의 餘地를 개척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註]

- (1) Monroe Doctrine Formula : 1954年2月1日 美上院外交委報告에서 사용된 말, 韓美相互防衛義務규정형식을 몬로主義에 입각해서 취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2) 美上院은 1954年1月26日 韓美相互防衛조약 제3조의 「방위 의무」에 관하여 두가지 제한된 해석을 결의하였다.
- (3) 1961年 5月 26日 國家再建 最高會議과 유엔군사령관은 後者의 韓國 陸海空軍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共產침략으로 부터 韓國을 방위할 때에 한하여 行使된다」는 내용의 특별 共同성명을 발표했다.
- (4) 日本 鹿兒島研究所刊 「今日の韓國」
- (5) Setting National Priorities - the Next Ten Years, by Henry Owen and Charles L. Schultz, Brookings Institution P. 36
- (6) Reuters, 1977. 7. 27 보도
- (7) "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
『다음은 美合衆國의 理解사항이다. 즉 어느쪽 締約國도 이조약 제3조하에서는 他方의 나라에 대한 外部로 부터의 武力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원조에 나설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또한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大韓民國의 行政的 관리하에 適法으로 조치된것으로 合衆國에 의해 認定된 領域에 대한 武力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合衆國이 大韓民國에 대하여 원조를 공여하도록 의무화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It is the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that

neither party is obligated, under Article III of the above Treaty, to come to the aid of the other except in case of an external armed attack against such party ; nor shall anything in the present Treaty be construed as requiring the United States to give assistance to Korea except in the event of an armed attack against territory which has been recognized by the United Stat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Republic of Korea.)

(8) 前掲書 (5) P. 34

(9) "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 S. Army in the Korean War " by Walter G. Hermes. Published by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PP. 436 — 458 .

(10) Hearings before the Sub-Committee on U. S. Security Agreements and Commitments abroad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91st Congress, (Second Session) Part 6, Feb. 24. 25. 26. 1970. PP. 1593. 1959.

(11) 世界大百科事典(日本平凡社) 第18卷 P. 104 a.

(12) 前掲書 (9) P. 456

(13) 日本朝日 新聞調査研究室編

「70年代 朝鮮」 IV (軍事編)

結 論

이상에서 우리는 美-北韓의 接觸問題를 北韓의 對美基本立場, 美國의 北韓에 대한 現實主義的 接觸의 배경과 過程,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情勢, 美國의 對共產主義國家의 接近의 類型, 韓國安保와의 關係등의 여러 측면에서 巨視的 또는 微視的으로 多角度的 안목으로 考察했다. 그 內容을 여기서 반복할 必要는 없지만, 北韓이 追求해 온 駐韓美軍의 全面的 철수와 大韓民國의 孤立化戰略은 共產主義統一의 필수적 先行條件이 됨으로 앞으로 對美接觸이 어떻게 進전되든 또는 못되든 그 어떤 경우에도 金日成政權이 存続하는 限 絶대로 이 戰略은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이 戰略的 目標은 北韓의 對美接近에서 不變의 原則的 立場으로 될 것이다. 金日成은 지난 30年 동안 駐韓美軍의 철수를 부르짖어 왔고, 그의 主体思想도, 民族統一戰線戰術도 北韓에서의 <革命的 民主基地> 建設도 第3世界와의 제휴政策도, 對유엔政策도 모두가 黨의 統一政策路線과 有機的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그가 駐韓美軍의 全面的 철수나 韓國軍의 戰力增強문제에서 양보한다는 것은 그의 30년간의 일관된 黨路線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의 權力의 이데올로기의 土台를 깎그리 허물어 버리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는 黨權에서 물러나야 될 것이다. 그런 일은 그가 할수 없다. 혹자는 그도 결국은 南北간의 平和共存을 수락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나 그는 休戰直後부터 平和共存은 서로 體制를 달리하는 한 外國과 다른 外國과에서만 성립할

수 있으며 한 민족이요 한 나라인 南北韓간의 關係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완강하게 반대해 왔다. 따라서 南北간의 潛定的 平和共存을 뜻하는 南北韓의 同時 유엔加入, 南北韓에 대한 美, 日, 中, 소의 交叉承認도 그는 繼續 거부할 것이다. 이미 그는 이러한 조치를 <두個 朝鮮을 조작하려는 犯罪的 策動>으로 규정하고 <喪國背族行爲>라고 비방해 온 때문에 그것을 수락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立場에 있다. 그러나 駐韓美軍을 全面的으로 철수시키고 韓美 相互防衛條約을 무효화 하는 條件에서라면 民族의 統一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그는 어떤 제안도 수락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韓國도 美國도 수락할 수 없는 일이다. 金日成이 진실로 획책하는 것은 大韓民國의 國際的 支持勢力을 제거하는 조건에서 韓半島의 軍事的 現狀을 우선 打破하자는 것이오, 停戰協定으로 바꾼다는 그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戰略의 일환이다.

한편 美國의 立場은 韓半島의 지금의 分斷 現實을 일단 그대로 인정하고 緊張狀態를 완화시키고 南北간의 接近을 기도하면서 平和的 國際秩序를 確立하며 統一問題의 해결은 그 뒤로 미룰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先平和 後統一政策이다. 이 테두리 안에서 美國은 北韓과 어떠한 接觸도 가지고 現行 休戰協定을 南北韓, 美國, 中共등 韓半島의 当事國들 간에 체결할 것을 추진할 것이다. 美國의 對北韓接觸은 이런 立場의 範圍를 넘지 않을 것이다. 美國은 그 傳統的인 現實主義 外交政策에 따라 北韓側과 직접 또는 第3國을 통하여 接觸하면서 金日成의 意圖를 探索하고 妥協點을 찾는 努力은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을 蔑外視하고 北韓側과 韓半島問題를 놓고 단독 교섭하지는 않을 것이다.

夷利追求를 原則으로 하는 美國外交는 孤立主義로 되돌아가 日本의 安全만 보장되는 條件이라면 韓半島에 대한 介入을 철회할수 있다는 可能性도 일단 예측할수 있지만, 그때는 北大西洋 同盟機構의 會員 國들 마저 美國의 同盟國들에 대한 防衛公約을 크게 의심하고 美國을 不信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염려해서라도 美國은 韓國에 대한 防衛公約상의 義務를 포기하지는 않을것이다.

美, 소의 지금의 關係는 競爭的 共存關係요, 美, 中共의 關係는 國交正常化의 過程속의 關係라고 規定할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美國의 對미, 소關係는 점점 더 深化될 것이다. 그러나 미, 소關係는 政府레벨에서 그 어떤 調整은 있겠지만 미, 소가 党的으로 和解한다는 것은 現在로서는 豫見할 수 없다.

美, 中共, 소聯의 3角關係에서 美國은 가장 유리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美國은 소聯 및 中共과 交渉하여 北韓으로 하여금 南北韓의 平和共存을 수락하도록 壓力을 加하는 努力을 시도할 것이라는 忖측은 구구하게 나돌아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努力은 성공치 못할 것이다. 國際共產主義運動과 관련하여 ²美, 소 두나라는 각각 北韓을 자기 편으로 끌어 들이기 위하여 치열한 競爭을 벌이고 있다. 만일 ¹미, 소의 그 어느 한나라가 美國과 合意하여 北韓이 반대하는 조치를 取할 때는 다른 한나라는 그것을 口實로 <背信者>라는 맹렬한 政治攻勢를 加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美, 소가 内心으로는 韓半島의 現實을 시인한다고 해도 그것을 國際적으로 발설할 수도 없고, 결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北韓의 立場을 競爭的으로 支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美國과의 충돌을 각오하면서 까지 金日成의 南侵을 支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展望되는 狀況은 韓半島의 問題가 해결 불가능한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음을 의미한다. 平和的 方法으로도 해결할수 없고 그렇다고 戰爭도 할수 없는 狀況이다. 여기서 韓國政府가 시도할 수 있는 解決方案이란 사실상 없다. 韓半島에서 南北은 緊張狀態속에서 상호간의 平和攻勢와 이데올로기 論爭과 經濟建設競爭과 軍備競爭은 불가피하게 繼續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韓國이 택한 對策이란, 美, 北韓의 接觸여하를 注視하면서 韓美간의 結속을 繼續 強化하는 일이다. 北方의 3角關係를 고려할 때 韓國의 國際的 同盟關係는 절대로 중요하다. 自主國防 政策은 勿論 必要하다. 이것은 내 나라는 내 힘으로 지킨다는 精神的 각성을 促求하자는 것이며, 南北韓이 1대1로 싸우는 경우에 對備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¹대, 소가 金日成의 南侵을 支援한다면 問題는 달라진다. 金日成이 ²히, 소의 사실상의 支援 또는 支援約束없이 南侵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며, 南北韓만의 1대1의 戰爭이란 現實性없는 假想에 불과하다.

北으로 부터의 南侵이 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 소의 競爭的 支援이 있을것이다. 그리고 美國이 韓半島에 介入되어 있는한은 ³히, 소는 결코 그러한 무모한 南侵을 지원하지 못하겠지만, 美國이 그 介入을 철회하여 南北韓의 勢力均衡이 뒤집히고 南韓이 國際的 空白地帶가 된다면, 南侵은 반드시 있고 미, 소는 이것을 마음놓고 支援할 것이다.

美國은 여전히 南侵에 대한 抑制力이며, 따라서 韓.美간의 結속은 유지 強化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韓國의 安保는 1次的 重要性을 지고 있지만 南北간의 이 메울로기 鬭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韓國은 民主主義를 伸長시키고 社會正義를 최대한으로 實現할 수 있도록 비상한 努力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오늘 南北간의 대립과 鬭爭은 異民族간의 鬭爭이 아니라 한 民族 안에서의 思想鬭爭이오, 制度의 우월을 다투는 鬭爭이다.

여기에서의 中心은 필경은 自由와 社會正義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共產主義를 批判하는 것은 장차의 民主的 統一을 위하여 必要한 條件이다. 그러나 充分한 條件은 못된다. 共產主義는 批判에 그치지 말고 思想的으로 制度的으로 克服되어야 하는 것이다.

微視적으로 우리의 對備策을 論擧한다면 수다한 問題들이 제기되겠지만 이 小論에서는 對策의 方向을 巨視적으로 지적하는데 그치고저 한다.